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베이커 주지사 한국 메르스 사태 '아몰랑'

이민자 이슈 "잘몰라" 대답 피해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 분위기 냉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한국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 유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8월경 메르스 예방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짧막하게 답변했다.

지난 19일 매사추세츠 주 청사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베이커 주지사는 메르스 관련 질문을 비롯한 각종 소수민족 언론들의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대답 없이 "좀 더 알아보겠다"는 짧막한 멘트만을 남겨 기자들의 빈축을 샀다.

베이커 주지사 취임 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같은 그의 소수민족 기자회견 태도는 소수민족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드벌 패트릭 전 주지사,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 모라 힐리 법무장관 등의 태



지난 19일 열린 소수민족 기자회견에서 베이커 주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도와는 사뭇 대조돼 상당수 소수민족 언론사들이 불만을 표출했다.

한 중국 신문사 기자는 "하버드의 입학생 선발 정책에 대한 아시안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베이커 주지사는 "그런 일이 있냐"며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어떤 경우에서도 인종적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급하게

덧붙였지만 질문을 던진 기자는 기대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어 베이커 주지사는 도미니카 공화국내 아이티인 추방에 관한 뉴욕 시위, 매사추세츠 주 공립학교내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재정 부족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잘 모르는 것에 대답하기 어렵다. 숙제할 것이 많은 듯하다"고 짧게 답

▶▶2면으로 계속

7월 3일자 보스톤코리아 정기 휴간

보스톤 탁구협회 미주체전 금메달 따냈다

이진원 회장, 장년부문 우승
비선수 출신 금메달 '이례적'
탁구협회, 청소년 무료 탁구교실 운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탁구협회 이진원 회장이 지난 19일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미주한인체전 탁구 장년부문에



이진원 보스톤 탁구협회 회장

서 금메달을 따냈다. 미주체전 탁구부문에 보스톤 팀이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별히 송대호, 배성환, 이동완, 샘 오와 같은 전 탁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을 제치고 비선수 출신이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진원 회장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번 대회로 출전권을 획득해 기쁘다"며 "함께 탁구치던 친구들을 3,40년만에 만날 수 있어 더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할인항공권 전문

From **\$1095**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비수기 특가

대한항공+국내선 (뉴욕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출발기한은 2015년 7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또한 발권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항공권 예약상황은 실시간으로 변동되며, 이에 따라 항공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vlkr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e N.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Dir: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e@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지난 19일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임기 후 두번째 소수민족 언론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기자들의 질문 상당수에 대답을 주지 못해 실망스럽다는 평이다

'친이민자 성향' 패트릭 전 주지사와 대조적 소수민족 언론 실망 기색 역력

▶▶1면에 이어서

했다. 한편, 베이커 주지사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대한 매사추세츠 현 정책을 변경할 의지가 없음을 확고하게 발표했다. 남미 언론사 관계자들은 주지사에게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가하거나 이민자들을 위해 보험혜택의 자격조건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베이커 주지사는 “없다. 현 매사추세츠 법이나 정책 중 어떤 것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경직된 분위기 속에 진행되던 기자회견은 한 중국인 언론 관계자의 농담섞인 발언으로 겨우 풀려졌다. 그는 “도체스터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개설할 계획은 없다. (내가) 이름까지 지어놨는데”라며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 중독에 대해 언급하며 “상상도 못할 양의 오피오이드가 매년 복용되고 있다. 중독자 치료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하이, 보스턴 직항노선 개설, MBTA 전철 시설 개선안 등에 대해 발언했다.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에 걸쳐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스톤코리아를 비롯해 중국, 아이티, 포르투갈, 브라질 등의 언론사 관계자 총 16명이 참석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비선수 출신 이진원 회장 우승 "꿈의 전국체전 출전하게 돼 기뻐"

▶▶1면에 이어서

속 뜻깊은 대회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탁구 대회는 개인전과 50대 이상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장년부문으로 나뉘었다. 장년부문에 참가한 이진원 회장은 쟁쟁한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을 물리치고 결승까지 올랐다. 대학교 선수 출신인 김종구 선수와의 결승 시합에서 3대 1로 이겨 우승을 거머쥔 이 회장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보스톤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진원 회장은 이번 우승을 계기로 보스톤 지역 청소년들이 탁구라는 스포츠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미주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의 평균연령은 64세”라고 전한 이진원 회장은 “장년층만 탁구협회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쉽다. 꿈나무 청소년들이 탁구를 통해 체력을 기르며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청소년을 위한 무료 탁구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무료 탁구 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이진원 회장은 “탁구 라켓 등의 용품도 준

비되어 있다. 탁구도장 입장료(청소년 \$6)만 내면 된다”며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권장했다. 지난 19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워싱턴 디씨의 허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제 18회 미주한인체전에는 보스톤을 포함해 뉴욕과 워싱턴 디씨, 오렌지카운티, LA, 네바다 등 미주 전역에서 한인 체육인들이 모였다. 보스톤에서는 탁구팀과 야구팀이 출전했으며 탁구협회에서는 이진원 회장을 비롯해 신완철, 김영기, 윤종훈 등 총 5명, 야구 대표팀에서는 총 1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보스톤 대표팀의 총 감독과 단장으로는 각각 현대 유니콘스 선수 출신인 하득인 야구 감독과 야구협회 한규만 회장이 임명됐다. 조형구 보스톤체육회 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주체전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편, 보스톤 야구팀은 20일 1차



2015년도 미주체전에서 보스톤 탁구협회 이진원 회장이 장년부문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은 보스톤 탁구협회 회원들

전 상대로 우승후보였던 LA 대표팀을 만나 고전 끝에 15대 0으로 패했다. 이어진 네바다 대표팀과의 2차전은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경기가 전면 취소되는 등 아쉬운 게임을 뒤로 하고 보스톤으로 돌아오게 됐다. 한규만 회장은 “아쉬운 대회였지만 처음으로 지역 야구 대표팀이 (미주체전에) 출전하는 좋은 경험을 가졌다”며 “무엇보다 미 전역의 한인 야구 협회와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향후 타 주리그와의 교류와 대회 등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고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펴기 & 셋팅 펴기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펴기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늦어지는 뉴잉글랜드 랍스터 시즌... 가격은 '깡충'

낮은 수온 랍스터 어획량 줄어
예년보다 \$1~\$2 오를 전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2012년 이래 꾸준히 오르고 있는 뉴잉글랜드 랍스터의 가격은 올해도 어김없이 올랐다. 랍스터 어획량이 증가해 가격이 낮아지는 랍스터 시즌 또한 7월 중순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현재 랍스터의 시장가격은 파운드 당 \$6~\$8로 지난해 보다 \$1~\$2 가량 오른 가격이며, 보스톤에 위치한 양키 랍스터(Yankee Lobster Co.)가 공개한 가격은 파운드 당

\$8.99~\$9.99이다.

한 한인인은 최근에 글러스터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를 주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가격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1¼ 파운드 트윈 랍스터가 지난해말까지도 \$30이었는데 한 달 전에 갔을 때는 \$50로 올라 있었다. 여러 명이서 갔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놀랐다" 는 것이 그의 말이다.

올해 랍스터 가격이 대폭 오른 데에는 지난 겨울의 추위가 한 몫했다. 낮아진 수온으로 인해 랍스터의 탈피 시즌이 늦춰졌고 일정 크기 이상 되어야 포획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획량이 감소한 것이다.

메인 랍스터 딜러 협회의 팀 하킨

스 회장은 "7월 첫째 주부터 랍스터가 잡히기 시작할 예정으로 7월 중순이나 돼야 랍스터 철이 풍성해질 것"이라며 "그때쯤이면 (랍스터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킨스 회장의 말에 의하면 지난 2012년에는 '이례적인' 수온 상승으로 인해 풍부한 먹잇감이 공급, 랍스터의 활동이 빨라져 탈피 시즌이 앞당겨졌다. 실제로 당시 랍스터의 시세는 \$3.50에서 비싸야 \$4.00에 그쳤다.

미국에서 수요되는 랍스터의 95%가 메인에서 잡히는 만큼 올해 랍스터 가격의 인상은 미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dyoo9146@bostonkorea.com

H마트 장바구니 집 앞까지 배달된다

최소 15분에서 2시간내 배달
쇼스, 마켓바스켓, 코스트코
서비스 포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장바구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스타카트(Instacart)가 지난 24일 H마트 서비스를 포함하며 보다 넓은 사용자 유체에 나섰다.

이로써 인스타카트 사용자들은 단 클릭 몇 번으로 싱싱한 야채나 과일부터 김치, 냉동식품, 과자 등의 H마트 전품목을 2시간 이내로 받아볼 수 있다. 첫 배달은 무료 배송이다.

인스타카트의 딜리버리 지역은 뉴튼, 워터타운, 알링턴, 벨몬트, 메드포드 등의 지역을 포함한다. 특정 주소로 딜리버리가 가능한지는 해당 웹사이트(instacart.com/locations/boston)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H마트 외에도 쇼스, 마켓 바스켓, 홀푸드, 코스트코 등의 식품점의 장바구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스타카트의 딜리버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자세한 정보 및 회원가입은 홈페이지(instacart.com)를 통해 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마신형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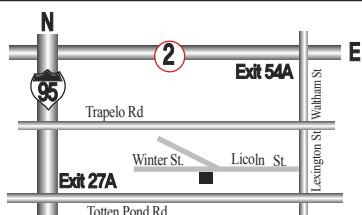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제3에너지 업체 통한 전기 요금절감, 할까 말까

전기사용량 많은 여름 자영업자들 고민
제3 에너지 회사 선택 시 10~20% 절약
브로커, 늘 관리하고 세심하게 신경써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정부의 전기 완화 규제로 제3에너지 회사 선택이 가능해졌지만 많은 한인들은 선택 제3에너지 회사 선택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지난해 겨울 30% 가까이 인상된 전기 요금으로 인해 가뜰이나 부담스러운 한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전기 요금 절약 방법으로 제3업체 선택을 고려 중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제3업체 선택으로 인한 일시적 전기 요금 절감이 향후 전기 요금 폭탄으로 되돌아올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3에너지 업체 선택 시, 다양한 업체의 가격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브로커를 통해 에너지 회사 쇼핑에 나설 것을 추천하고 있다. 단, 이 경우 전기 요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하며 브로커와의 거래가 영어로 소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제3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전기요금을 낮추는 한 가지 방법이다.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은 에너지 공급과 딜리버

리를 함께 제공하는 내셔널 그리드나 에버소스 에너지(기존의 엔스타)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다. 하지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제3에너지 업체를 찾았다면 조금이나마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제3에너지 업체의 요금을 비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일일이 에너지 회사에 연락해 전기 고정(Fixed) 요금과 변동(Variable) 요금을 알아보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브로커다.

브로커는 다양한 회사들의 자료를 갖고 있어 보다 저렴한 전기 공급과 딜리버리 회사를 연결해준다. 다만 이와 같은 선택이 소비자들 기대하는 것만큼 큰 비용절감을 보진 않는다. 에너지 가격을 10%에서 20%까지 줄일 수 있지만 거쳐야 하는 모든 절차를 감안했을 때, 상당수의 사업주들은 기존의 에너지 회사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전기 회사 쇼핑은 매사추세츠는 전기 완화 규제로 인해 가능해졌다.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Generator)와 송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딜리버리(Delivery), 전기를 판매하는 에너지 판매회사(Supplier)를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자율적으로 저렴한 업체를 고를 수 있는 것이다.

제3에너지 회사나 브로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 웹사이트



(mass.gov/eea/energy-utilities-clean-tech/electric-power/electric-market-info/resources-brokers-suppliers.html)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연소득 백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가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는 전기나 가스 등 유틸리티에 부과되는 세일즈

텍스(Sales Tax) 면제해주는 ST-13 서류양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꼼꼼히 작성해서 현재 이용하는 유틸리티 회사에 보내면 된다. 양식은 마찬가지로 주 정부 웹사이트 (mass.gov/dor/forms/trustee/sales-and-use-tax/)에서 찾을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무료 절전 패키지 신청마감 임박

30일 이메일 접수 마감 임박
신청 시 \$60 상당 패키지 무료



\$60 상당의 절전 패키지 신청이 오는 30일 마감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LED 전구 두 개와 7구 멀티탭을 포함한 무료 절전 패키지의 신청이 오는 30일 화요일 마감된다.

23일 기준, 무려 140여명의 한인들이 절전 패키지를 신청했으며 ‘마침 콘센트가 필요했는데 잘됐다’, ‘좋은 정보 감사하다’ 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왔다.

\$60 상당의 절전 패키지는 30일까지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무료로 제공된다. 한 가정당 한 개의 패키지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에 거주해 주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닛을 구분해서 신청하면 된다(예. Unit 1, Unit 2).

7월 중순경에 배부를 시작할 절전 패키지는 보스톤코리아 사무실(13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에서 픽업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무료 절전 패키지 배부는 지역 한인 유강조 씨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년간 총 3만개의 전구를 무료로 기

증해왔다. 일반 CFL 전구를 기증해온 기존과는 달리 올해는 특별히 \$16 상당의 LED전구 두 개와 \$30 이상 상당의 7구 멀티탭이 제공되어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보스톤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고 위한 미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시작했다는 유강조 씨는 “많은 한인들이 신청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다음은 절전 패키지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다.

Q. 보스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데, 주소로 배달이 가능한가?

A. 패키지는 직접 픽업해야 한다. 올스톤에 위치한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이 집에서 멀다면 보스톤 한인회 (haninhoebo@gmail.com)로 신청해 우편의 한인회관에서 픽업하는 방법

도 있다. 한인회관 주소는 15 Campbell St, Woburn, MA 01801이다.

Q. 픽업은 언제하면 되나?

A. 픽업 날짜는 7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6월 30일 마감한 신청자 명단을 전구회사로 보내면 패키지가 사무실에 도착하는 데 약 1주에서 2주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제한절에 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날짜는 추후 기사로 공지할 예정이다.

Q. 매사추세츠 주로 이사할 예정인데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

A. 물론이다. 이사하게 될 주소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로 신청하면 되며 패키지 픽업은 이사 후 자유롭게 해도 된다. 실제로 뉴햄프셔와 로드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신청을 답지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협회가 오는 7월 11일 브라이튼 소재 크리스찬 헤르터 파크에서 열린다. 사진은 2013년도 피크닉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참가자들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협회 피크닉 개최

전, 현직 및 예비 간호사 참여 권장

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날 피크닉에는 밥과 불고기, 김치가 제공될 예정으로 참석자들이 반찬 등의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해오는 것이 권장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 간호사협회가 오는 7월 11일 브라이튼 소재 크리스찬 헤르터 파크(Christian Herter Park)에서 개최된다.

간호사협회 측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간호사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며 많은 한인 간호사들이 행사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이날 피크닉에는 전, 현직 간호사들을 비롯해 미국 간호사 시험(NCLEX)을 준비하거나 합격해 취업을 준비 중인 예비 간호사,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간호학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협회나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koreannurses.org)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이메일(info@KoreanNurses.org)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7월 11일 토요일 오후 12시~3시

장소: 크리스찬 헤르터 파크 (1175 Soldiers Field Rd, Boston, MA 02228)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7월 4일 독립기념일 제대로 즐기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의 여름을 더욱 풍성하게 장식하는 독립기념일(Fourth of July)이 7월 4일 토요일로 성큼 다가왔다. 독립기념일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4일 밤 찰스 강변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이다. 보스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욱 가볼만한 축제가 될 듯하다.

4일 당일은 오전 9시부터 에스플라나드(Esplanade)에 입장이 가능하며 최소한 6시 전에 들어야 좋은 자리를 맡을 수 있다. 이날 시내에 나갈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녁 8시부터WBZ-TV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할 수도 있다.

▶보스톤 팝스

4일에는 에스플라나드의 야외 콘서트장인 해치셸(Hatchshell)에서 저녁 8시 30분부터 보스톤 팝스 콘서트가 시작된다. 올해는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 등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당일은 사람이 많아서 부담스럽지만 콘서트는 보고 싶다면 전날 3일에 열리는 리허설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꽃놀이

독립기념일 행사의 꽃은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펼쳐지는 불꽃놀이이다. 콘서트가 열리는 에스플라나드는 나무가 많아 불꽃놀이가 일부 가려질 수도 있다. 매년 인기가 좋은 롱펠로우 다리(Longfellow Bridge)는 아쉽게도 공사 중이며 매스 애비뉴 다리(Mass Ave Bridge)도 올라갈 수 없다. 이에 따라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올해 최적의 장소는 MIT쪽 강변이 될 듯하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최고의 명당은 찰스 강 위. 보트를 가진 사람은 강 위에서 수놓은 화려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크루즈를 예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편,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기가 밀려오는 방향에 자리를 잡았다면 일년에 한 번 뿐인 장관을 놓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바람의 방향을 알아봐야겠다.



▶소지품 검사

에스플라나드의 입구에서는 보안을 위한 철저한 소지품 검사가 이뤄진다. 백팩, 아이스박스, 카트, 폭죽, 그릴, 유리병, 캔 등을 반입이 불가하다. 실제로 매년 입구에는 백팩이 산더미처럼 쌓이지

만 행사가 끝난 후 본인의 가방을 찾이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반드시 소지품은 작은 가방이나 투명한 비닐 백에 담아가야 한다.



▶교통편

전날인 3일부터 상당 지역의 도로와 주차장이 폐쇄될 예정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에스플라나드와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레드라인의 찰스 MGH와 그린라인의 알링턴 역이다. 밤 9시 30분 이후에는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돼 집으로 돌아갈 때는 탑승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불꽃놀이를 보러 나온 50만명의 인파와 함께 돌아간다는 점만 유의하자.

한편, 이날만큼은 자전거도 집에서 쉬게 하는

편이 낫다. 엄청난 인파를 뚫고 자전거를 끌고 다닌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무엇보다 보안구역 내에서는 탈 수조차 없다. 펜스나 기둥에 묶어둘 경우에는 견인될 수 있다.

▶지역 축제

에스플라나드 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매사추세츠 여러 지역에서도 불꽃놀이와 각종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오전에 지역 행사를 즐기다 이후 불꽃놀이를 보러 보스톤 시내에 나오는 것도 독립기념일을 알차게 즐기는 한 방법이었다. 각 지역의 독립기념일 행사 일정은 관련 링크(massvacation.com/explore/holidays/4th-of-july)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하버페스트

7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축제 '하버페스트(Harborfest)'는 1일 퍼네일 홀에서 열리는 기념식으로 시작된다. 5일간 각종 역사 투어와 퍼레이드,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bostonusa.com/harborfest)에서 찾아볼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한인변호사 모임 성황리에 개최

“지역사회에 바른 이미지 전달하고자”
전명진 판사 참여 기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미국변호사들의 2015년도 상반기 모임이 지난 3일 수요일 캠프리지 소재 코리아나 한식당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김연진, 스티븐 김, 정선진, 성기주, 김수연, 장우석 이상 6명의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토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각 주의 H-1B 서류접수 처리 현황과 한인들의 이민법원 추방재판 활용 여부, 공권력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참석한 변호사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매사추세츠 아시안 아메리칸 변호사 협회(AALAM)의 회원으로 이날 모임에 참석한 스티븐 김 변호사는 “많은 한인 변호사들이 매사추세츠 아시안 아메리칸 변호사 협회에 가입해 함께 활동하면 좋겠다” 는 바램을 밝혔다. 이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좋은 협회를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는 인사와 함께 향후 협력해나가길 원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모임을 주최한 장우석 변호사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여서 더욱 반가웠다” 며 “이와 같은 모임이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들의 권익을 위함

이다. 지역사회에 (변호사들의) 올바른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다” 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 모임에는 전명진 판사님도 뵙길 바란다” 며 법조계에 종사하는 지역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했다.

한인 미국변호사 모임에는 현재 총 11명의 변호사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민국 서류접수 현황과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이슈, 지역사회 동정 등을 공유하는 모임으로 진행된다. 한인 미국변호사 모임의 행사에 대한 정보나 모임 참가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 (koreanlawyers.us@gmail.com)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재향군인회 신임회장으로 임명된 김우혁 회장과 이강원 전 회장의 이취임식이 지난 21일 월담 소재 새빛교회에서 개최됐다

재향군인회, 6.25 기념식 겸한 이취임식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향군인회 보스톤 연합회(회장 김우혁)가 지난 21일 일요일 월담에 위치한 새빛교회에서 6.25 기념식을 겸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회장으로 임명된 김우혁 회장은 “이산 가족의 아픔을 잘 아는 우리 향군 회원들이 평화통일을 위한 일꾼이 되어 나라 사랑하는데 앞장서야겠다” 며 “이강원 전임 회장의 뜻을 이어 향군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6.25 기념식을 통해 참석한 한인들은 6.25 노래와 관련 동영상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한인인은 “옛날에 학교에서 부를 때처럼 두 주먹을 쥐고 흔들며 신나게 부르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와 김경원 한인회장, 노명석 동북부 재향군인회 지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이외에도 김성혁, 흥진섭 전 민주평통 회장과 한윤영 고문, 황우성 간사, 이동문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유한선 전 한인회장, 장우석 변호사, 김대업 새빛교회 담임목사, 6.25참전 유공자, 뉴잉글랜드 해병대전우회, 광복 70년 해방동이 모임, 한국사랑회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취임식과 6.25 기념식의 순서가 모두 마친 후에는 새빛교회 성도들과 부녀회원들이 준비한 푸짐한 식사가 이어져 참석자들간의 따뜻한 교제가 이어졌다.

김우혁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시고 행사를 준비해주신 새빛교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는 소감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민주평통 한선우 신임회장 임명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 위해
한국 방문 예정

전했다.

지난 19일 금요일 민주평통 사무처로부터 17기 민주평통 회장 임명을 통보 받은 한선우 신임회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역임하게 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선우 전 보스톤 한인회장이 17기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임명되어 오는 7월 1일 개최되는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키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선우 민주평통 신임회장은 “한인회장직을 내려놓은지 얼마되지 않아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 부답스럽기도 하지만 40대부터 거의 10년 이상 민주평통에서 활동해온 경험으로 (김성혁 전 회장)이 잘 꾸려온 평통을 이어 받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는 소감을

표했다. 한편, 지난 2년간 민주평통 회장을 역임해온 김성혁 전 회장은 “보스톤 한인사회의 수준 높은 역량을 반영해 민주평통의 이상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며 “더욱 발전하는 17기가 되길 기원하며 계속해서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올해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장 임명은 한국 민주평통 사무처의 행정지연으로 한 달 이상 늦게 발표되었다. 보스톤협의회회장 이취임식 일정은 현재 미정으로 7월 1일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한선우 전 한인회장이 17기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임명됐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돌벅수 만들며 조상들과 하나됨 느껴”

재미교포 세라믹 아티스트 이재욱 전시회 개최
한국 전통 깃든 돌벅수에 미국인 관객도 호응



세라믹 아티스트 이재욱(왼쪽)과 화가 조엘 모스코위츠의 2인전이 프래밍햄에 위치한 파운틴 스트리트 파인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벅수에는 복을 비는 조상들의 정신과 민간신앙, 예술적 아름다움, 해학이 담겨있다. 해외에 사는 교포로서 돌벅수를 만들다보면 조상들과 깊이 하나되는 만족감을 느낀다.”

돌벅수에 ‘꼭’ 빠진 세라믹 아티스트 이재욱 씨의 말이다.

진흙으로 벉수를 재창조하는 이재욱 씨는 작품마다 특별한 의미와 이름을 붙여준다. ‘기도의 벉수’, ‘다산의 벉수’, ‘음과 양의 벉수’ 등 24개의 다양한 벉수들이 내달 11일까지 프래밍햄 소재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벉수(Guardian) 또는 정승은 어느 샌가부터 박물관이나 인적이 드문 시골 어귀에서밖에 볼 수 없는 한국의 전통 문화재로 남았다.

이재욱 씨의 말에 의하면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면서 벉수 문화가 미신 또는 토속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씨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문화와 종교를 혼동해 훌륭한 문화 유산을 경원시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재욱 씨가 돌벅수, 또는 정승을 처음 만난 것은 6년 전, 서울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다. 세종옛돌 박물관에서 편찬한 책을 보다 돌벅수를 처음 알게 된 이 씨는 그 순간을 “충격적이었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고 회상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세종옛돌 박물관에는 수천점의 돌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이때 느꼈던 감동을 바탕으로 이 씨는 진흙을 사용해 벉수를 재창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돌벅수를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돌의 표면을 나타내기 위해 이 씨는 이런 저런 방법을 시도했다. 손자국을 그대로 놔두거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등 수 차례의 실험 끝에 탄생한 지금의 벉수는 마치 실제 돌로 조각한 듯하다.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질감의 표현이 생생하다.

섭씨 2,000도 이상에서 단단하게 구워진 벉수는 실내 뿐 아니라 정원 등의 야외에도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무엇보다 한국적인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한국적인 정서가 가득 담긴 벉수는 미국인 관객들의 시선을 끌기 충분하다.

갤러리로 옮기기 위해 카트에 담긴 벉수들을 보며 지나가는 미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이 씨는 “(벅수는) 한국인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모두 기원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 반응이 좋은 듯하다” 고 말했다.

이재욱 씨는 “항상 한국을 그리워하며 한국문화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어 있다. 작품을 통해 한국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 는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이스라엘 출신 화가 조엘 모스코위츠 (Joel Moskowitz)와의 2인전으로 개최된다. 모스코위츠 화가는 중동의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히브리어 알파벳과 아랍어 알파벳을 한 캔버스에 담아냈다.

세라믹 아티스트 이재욱 씨는 1974년에 도미, 프래밍햄 스테이트 칼리지에서 세라믹을 전공했으며 유메스 보스톤, 매사추세츠 칼리지 오브 아트, 보스톤 미술학교 (School of Boston Museum of Fine Arts), 하버드 래드클리프 세라믹 스튜디오에서 공부했다. 이재욱 씨의 더욱 많은 작품은 웹사이트(jaeoklee.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시회 일정
일시: 2015년 6월 11일~7월 11일
장소: 59 Fountain St, Framingham, MA 01702
dyoo9146@bostonkorea.com



7080 콘서트, 마지막 점검까지 완료, 신나게 놀아보자!

공연 티켓 \$60, 당일 현장에서 구매 가능

편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 하나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서 준비해 주길 바란다” 며 임원들을 독려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7080 콘서트를 28일로 앞두고 김경원 보스톤한인회장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지난 18일 우번 고등학교를 찾았다.

이날 김경원 회장은 특별히 뉴욕에서 방문한 콘서트 총 책임자인 윤 감독과 함께 우번 대강당 시설 관리자를 만나 무대장치와 음향 시스템을, 좌석 배치 등을 점검했다. 이로써 모든 준비는 마무리되었다.

김 회장은 “(이날 공연은) 보스톤에서 아주 오랜만에 열리는 공연” 이라며 “보다 많은 한인들이 불

편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 하나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서 준비해 주길 바란다” 며 임원들을 독려했다.
공연 티켓은 한인회 (781-933-8855)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티켓의 가격은 \$60이다.
사랑과 평화의 최이철, 디 패밀리의 이천행, 영사운드의 유영춘, 함중아와 무서운 아이, 장계현과 템페스트, 대학가요제그룹 건아들의 이창환 등이 공연에 나서는 7080 보스톤 콘서트는 오는 28일 일요일 우번에 위치한 우번 고등학교 대강당 (88 Montvale Avenue, Woburn, MA 01801)에서 개최되며 공연 시작 시간은 오후 6시다.
dyoo9146@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운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보스톤마라톤 폭파범 피해자들에게 사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마라톤 폭파범 조하르 사르나에브가 24일 최종판결에 앞서 자신이 지난 2013년 4월 테러공격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르나에브가 육성으로 자신의 뜻을 전한 것은 지난 공판 때 무죄 주장을 위해 말을 했던 이후 처음이다. 그의 성명은 마라톤 폭탄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가족들의 수시간에 걸친 증언이 끝난 후 마침내 나왔다.

사르나에브는 “희생자 및 부상자들에게 사죄드린다.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내가 살해한 사람들, 부상을 입힌 사람들의 고통, 가슴 아픈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 고 그는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읽었다.

그는 또 “나는 무슬림이고 내 종교는 이슬람이다. 나는 알라께 모든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한다. 나는 알라께 내 형나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자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했다” 고 밝혔고 법정에는 한동안 침묵에 싸였다.

사르나에브는 갑자기 대학생에서 급격한 무슬림 테러리스트로 급변했으며 지난 2013년 4월 15일 보스톤 마라톤 당시 관중들이 모여 있는 보일스턴 스트리트에 폭발물을 설치해 3명이 사망하고 260명이 부상하도록 만들었다. 이중 무려 17명이 팔 또는 다리를 잃었다.

사르나에브는 또한 폭파 이후 케임브리지에서 MIT 경찰 한 명을 사살한 혐의와 워터타운에서 경찰과 대처해 총격전을 벌였던 혐의도 받고 있다.

미 보스톤지법 조지 오를 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그가 미래에 악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마라톤 폭파 범주에 대해 사르나에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보스톤 마라톤 폭파범 조하르 사르나에브

오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앞으로 아무도 당신을 교사들이 사랑했던 사람, 유머가 있었던 사람, 훌륭한 운동선수 등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당신의 이름이 거론되면 당신히 행했던 악행만 기억될 것” 이라고 밝혔다.

오를 판사는 이어 다른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형 차감이 없는 중신형을 내렸다.

hsb@bostonkorea.com



20여 명의 사람들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MA 첫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지난 24일,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이후 약 3년 만에 첫 가게가 문을 연 것이다.

세일럼에 위치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 얼터너티브 테라피 그룹은 사전에 약속을 한 환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 정부에서 발행한 의료용 마리화나 등록 카드가 있어야 판매소에 들어갈 수 있다.

세일럼에서 첫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가 문을 열었지만, 세일럼에는 마리화나 재배지나 마리화나

처리 시설이 없다. 얼터너티브 테라피 그룹은 마리화나 경작 시설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 법에 의하여 의료용 마리화나라고 하더라도 마리화나 판매를 광고하거나 판매 가격을 공시할 수 없다. 마리화나 가격은 자격을 갖춘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에 방문해야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는 경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할 경우 한달에 1은스에 한해 할인된 가격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무부는 22일 모든 유권자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은 물론 소속 정당 변경 및 주소 변경이 가능한 온라인 유권자등록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윌리엄 갤빈 주무장관은 이제 2016년 대선 예비선거가 8개월 남았으며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더욱 쉽게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예비선거는 2016년 3월 1일이다.

매사추세츠 유권자 등록은 지난 2000년 4백만을 넘었으며 지난 2012년 대선 때 4,342,841을 기록해 최고 유권자 등록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매사추세츠는 미국내에서 21번째로 온라인 유권자 등록이 가능한 주가 됐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은 특히 젊은 유권자들과 소수민족 유권자들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는 지난해 온라인 유권자 등록과 2016년 11월 총선의 사전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바 있다.

유권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주무부 웹사이트(website <https://www.sec.state.ma.us/ovr>)를 방문해 유권자 정보를 기입하면 RMV 사이트에서 이 정보를 확인한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유권자의 경우 우편 등록 버전이 주어진다. 또한 RMV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프린트해서 각 지역 유권자 등록처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매사추세츠 첫 카지노 24일 개장, 대성황 이뤄

개장3시간만에 정원 초과, 15분 정도 줄서서 기다려야 입장 가능
카지노 향하는 1번도로는 1.5마일까지 차량행렬



(플레인빌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청교도의 엄숙주의에서 적어도 도박은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커네티컷 팩스우드, 모히건 썬의 주 고객이었던 매사추세츠 카지노 애호가들은 24일 역사적인 매사추세츠내 첫 카지노 개장의 서막을 대성황으로 장식했다.

매사추세츠 플레인빌에 들어선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플레인릿지(Plainridge) 카지노는 개장 1시간 만에 대성공이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보스턴글로브는 보도했다. 매장내 1250개에 달하는 모든 카지노 머신에 한꺼번에 돌아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플레인릿지 카지노는 개장 3시간만에 소방청이 허용하는 최대인원 3750이 모두 들어섰으며 이후 고객들은 15분을 기다려서 카지노에 입장했다. 일부 현금교환소는 돈이 떨어져 임시적으로 폐쇄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처럼 대성황을 이룬 플레인릿지 카지노는 일단 매사추세츠 주의 카지노 사업 승인이란 도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정부는 플레인릿지에서 개장 2년간 2억5천만불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플레인릿지는 현재 경쟁사인 팩스우드와 모히건 선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만 감당이 가능한 수치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의회가 미국내에서 40번

째로 주내 카지노 개장을 합법화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수익달러에 달하는 세금 수입으로 지금까지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이 세금을 모두 커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의 카지노에 지급해온 형태였다.

한편 플레인빌 경찰에 따르면 카지노와 연결되는 1번도로는 양차선 모두 1.5마일가량 차량행렬이 늘어서는 등 교통혼잡을 겪었다. 경찰은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이 같은 혼잡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지노 경연진들은 개장 12시간 안에 약 1만여 명의 카지노 이용객들이 플레인릿지 카지노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사추세츠 주는 지난 2011년 당시 주지사였던 드별 패트릭이 해당 약 4억달러의 세금유입을 이점으로 카지노 설립을 적극 추진해 결국 주내 카지노를 허용토록 했다.

개장 첫날 플레인릿지 카지노에는 매사추세츠 고객들뿐만 아니라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그리고 멀리서는 뉴햄프셔, 메인과 뉴욕주의 카지노 애호가들까지 찾아서 카지노를 즐겼다.

hsb@bostonkorea.com

뉴베드포드 \$650M 카지노 주민투표 통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팩스우드에서 관리하는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리조트 카지노 개발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뉴베드포드에서 통과되었다. 등록된 유권자 중 21% 가량이 참여한 주민투표에서 카지노 건설에 대해 8,355명이 찬성했고 3,040명이 반대했다.



뉴베드포드 카지노 리조트의 조감도

뉴베드포드 카지노 프로젝트는 과거 발전소로 사용되었던 부지를 사용할 예정이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역의 이점을 살려 해변 산책로도 함께 건설하고 한때 고래 사냥의 중심지였던 뉴베드포드 다운타운의 분위기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 통과는 카지노 개발 허가를 얻기 위한 첫 순서이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허가해줄 수 있는 마지막 카지노 허가권이자 세 번째 카지노 허가권을 놓고 뉴베드포드의 팩스우드 카지노는 브록턴의 페어그라운드와 경쟁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남동 지역은 마지막으로 남은 카지노 개발 지역이다. 뉴베드포드에 앞서 브록턴에서는 이미 주민투표가 통과되었다. 매사추세츠 게이밍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마지막 남은 카지노 개발권의 승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베드포드는 매사추세츠 내에서도 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현재 뉴베드포드의 실업률은 6.3%이다. 뉴베드포드의 카지노 개발회사는 카지노를 건설할 경

우 6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경제 효과를 앞세워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에 뉴베드포드에 카지노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카지노 건설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실제로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카지노로 인해서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교통만 혼잡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카지노 건설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는 셀 피터스는 "우리 도시는 이미 많은 문제가 있다"며 "또 다른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미 카지노 리조트 허가권을 따낸 개발사들은 카지노 건설 공사에 한창이다. 스프링필드에서는 엠지엠이 8억 달러 규모의 카지노를 건설하고 있고, 에버릿에서는 윈 리조트가 17억 달러 규모의 카지노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항암효과
- 면역력 증진
- 혈액순환 개선
-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동인비진 크림
DONGINBI Red Ginseng Power Repair Cream / B01

전화주문 서비스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Mix it SUSHI WOODLE GRILL

617.547.0212
Mixitrestaurant.com

FREE SPICY TUNA ROLL with purchase of any sushi \$30 or more

WE DELIVER lunch and dinner
Mix-it Sushi Noodle Grill | 1678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8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학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발행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여행을 한층 즐겁게 할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후원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베스트 업소에 당선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발행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아 고객들을 위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선택이 대한 계층은 꼭우려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미국 대법원 "건강보험 정부보조금 합법"... 오바마 승리

"재앙적 결과 피해야" 6대3 합헌 결정
640만명 정보보조금 유지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오바마 케어는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며 앞으로 시행되는 데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임기가 1년 반가량 남은 오바마 대통령은 전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획득하는데 이어 거듭 큰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이날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5년 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래 미국의 각 주(州) 마다 '거래소(Exchange)'로 불리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34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 640만 명 정도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으나, 공화당 등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보조금을 합헌으로 판결한 존 로버츠 대법원

장은 대법관들을 대표해 쓴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며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 판결 시 340개 주 640만 명이 정보보조금을 상실하게 돼 오바마 케어가 좌초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합의로 이미 시행돼온 국가 복지 인프라의 안정성을 흔들어서 실익이 없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위법 판결 시 640만 명이 1인당 평균 272달러, 가구당 1천 달러의 정보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대거 보험을 취소,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주별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13개 주만 정보보조금이 유지되면서 건강보험 유지에 따른 갈등만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가톨릭건강협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케어는 이른바 "도덕적 명령이자 미국의 가치"인 만큼 자신의 손을 들어달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그는 "미국은 아픈 사람을 외면하거나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로 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며 "우리 미국인은 이 법으로 인해 더 나아질 것이며, 이 법은 우리가 서로 보살펴야 할 사회적 구조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shin@yna.co.kr

오바마 차고로 불러낸 팟캐스트 WTF와 인터뷰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코미디언 마크 마론과 함께 하는 WTF(WTF with Mark Maron) 팟캐스트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화끈한' 인터뷰로 주목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팟캐스트 인터뷰는 미 동부시간으로 22일 새벽 3시 인터넷을 타고 전파됐고 전 세계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검둥이 발언을 긴급 타전했다. 실제 인터뷰는 19일 진행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금기 단어 '검둥이(니거·nigger)'까지 사용하면서 미국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인종차별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어느 인터뷰에서도 드러내지 않던 속내를 속속들이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한 흑인 교회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들며 미국내 인종차별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미국 사회가 인종 차별을 치유하지 못했다"며 단순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검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인종주의를 제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200~3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다"며 노예제도가 미국인들의 삶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이 팟캐스트에 출연한 것만해도 파격적 행보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마크 마론과 함께 하는 WTF 팟캐스트는 타이틀부터 심상치 않다. WTF는 'What the F***'이라는 비속어를 줄인 말이다.

마론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인터뷰에 대해 "진솔하고 대화"였으며 언론이 검둥이 발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찰스턴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부터 개인적인 가족 이야기,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코미디언 마론은 보스턴 대학 영문학 석사 출신으로 두 차례의 이혼에 과거 마약과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이력이 있다. 그는 스탠딩 코미디언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작한 팟캐스트로 인터넷 방송계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WTF 프로듀서에 따르면 마론의 팟캐스트 다운로드 횟수는 매월 평균 500만건이 넘고 매회 45만건이 넘는다.

마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뷰를 마치고 떠나며 남긴 블랙티(홍차)를 기념품으로 챙겼다. 마론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19일 인스타그램에 오바마 대통령이 차고에 두고 갔던 대통령 인장이 그려진 종이 커피컵 사진을 올렸다. 이후 마론은 "종이잔에 담긴 것은 커피가 아니라 블랙티였다"고 전했다.

인터뷰 장소 역시 기존 언론과는 달랐다. 인터뷰는 마론이 세 마리 고양이들과 동거하는 차고에서 진행됐다. 마론은 현재 이 차고를 스튜디오로 개조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팟캐스트가 공개된 시간과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수위 역시 이례적이었다.

kirimi99@news1.kr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임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미 흑인교회서 난사 21세 백인 검거...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 딜런 로프(21)가 범행 14시간 만인 18일 오전 11시께 검거됐다.

경찰은 로프를 공개 수배하고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벌인 끝에 노스캐롤라이나 셸비의 도로에서 자신의 검은색 엘란트라 차량에 타고 있던 로프를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로프는 검거 직후 경찰수사에서 총기 난사가 '인종 전쟁'을 위한 것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사회는 해묵은 흑백 인종 갈등에 기름을 붓는 이번 '증오성 범죄'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그레그 멀린 찰스턴 경찰서장은 시민의 제보를 받고 경찰이 로프의 승용차로 접근한 뒤 그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검거 당시 로프는 무기를 소지했으나,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찰스턴 인근 렉싱턴 출신 백인 남성 로프는 17일 오후 8시께 범행 현장인 찰스턴 '이매뉴얼 아프리카 감리교회'에 도착했다.

그는 지하 예배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들 옆에 1시간가량 앉아있다가 오후 9시 5분경부터 옆에 앉은 클레멘타 핑크니(41) 목사를 우선 겨냥해 총을 쏜 뒤 참석자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

현장에 있다가 목숨을 건진 목격자들은 로프가 "당신들은 우리 여성들을 성폭행했고, 우리나라를 차지했다. 당신들은 이 나라에서 떠나야 한다. 나는 흑인에게 총을 쏘러 왔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증언했다.

의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보안 카메라로 보면 로프가 가방을 쓰고가짜 코를 붙이고 있었으며, 피부 일부를 염색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보도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망자 9명은 모두 흑인으로, 주 상원의원이기도 한 핑크니 목사 등 목사 3명이 포함됐다.

핑크니 목사는 흑인으로는 23세 때 최연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원(민주당)에 당선됐고, 2000년에는 주상원의원이 됐다. 2010년 사건이 발생한 교회에 부임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그와 친분이 있다고 언급한 지역 내 유명인사였다.

사망자 가운데 여성이 6명, 남성이 3명이며, 연령대는 대학을 갓 졸업한 26세 남성, 54세 도서관 사서, 87세 할머니 등으로 다양했다.

로프는 올해에만 마약 사용과 무단 침입 등으로 2차례 기소된 적이 있으며, 고교를 두군데 다녔으나 졸업한 기록이 없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로프의 단독범행이자 '증오 범죄'로 보고 범행 동기를 캐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왜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희생자들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고 밝혔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총격을 가하게 된 모든 정황과 동기를 조사하겠다"며 "주 차원이 될지 연방 차원이 될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

기에 대해 "총격을 통해 인종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라고 자백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의 한 고교 친구는 ABC방송에 로프가 몇 달간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범행에 사용된 45구경 권총은 직접 구매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당초 이 권총은 그가 21세 생일을 맞은 지난 4월 아버지로부터 선물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사건은 12명이 사망한 2014년 9월 워싱턴 해군시설 총격 사건 이후 미국내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희생자를 낳은 총격은 비극"이라며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찾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망에 특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 "이런 종류의 대량 살상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총기 규제 문제를 어느 시점에서는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도 이번 사건과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격, 콜로라도 극장 총격 등을 언급하며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인종, 폭력, 총기, 분열이라는 힘겨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NBC 방송에 출연해 "무고한 9명이 숨졌다"며 "우리는 범인이 사형을 선고받기를 강력히 원한다"고 말했다.

shin@yna.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미국은 인종주의 극복하지 못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흑인을 지칭하는 금지어까지 사용하며 미국의 인종주의를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코미디언 마크 마론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은 인종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그것은 단순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깜둥이'(nigger)라고 말할 정도로 무례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인종주의가 여전히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공공연한 차별의 문제도 아니다. 200~3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던 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청년의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인종과 총기 문제에 관한 논쟁이 촉발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태어난 이후 인종에 대한 태도는 분명히 개선돼 왔지만, 노예 제도의 유산은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여전히 우리 DNA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

다"고 말했다. 또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상원은 2012년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26명의 희생자를 낸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드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그는 "미국총기협회(NRA)가 너무 강하게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샌드훅 초등학교 사건 이후 의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정떨어지는 일이다. 정말 넌더리가 났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의 열기가 오르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약간 기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만약 다시 출마하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정말 정신적으로 지쳤고 나이가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통속에 있는 것 같았다"며 "어려움을 극복해 살아남았고, 그건 항상 해방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mihee@yna.co.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최지희 헤어 (Bliss Image)
휴일없는 미용실

여름의산뜻함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 속눈썹 연장 시술 지도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중은 치과
중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박 대통령 "국회법, 국가위기 자초"...거부권 행사

제 26회 국무회의서 "3권 분립" 훼손해 위헌 소지"

유승민 겨냥 "여 원내사령탑, 경제 살리기에 어떤 협조했는지 의문"

"선거 후 신뢰 어기는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해야"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했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사를 밝힌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한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날 국무회의에 그 재의를 국회에 요구하는 안이 상정, 의결됐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행정 입법

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과정도 없이, 아무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쟁점이 됐던 행정입법 수정·요구권한의 강제성 문제와 관련, "(국회는) 위헌성 문제가 커져서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여야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제와 사법체제를 흔들 수 있는 주요 사안으로 여야의 '주요반기'식으로 서둘러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난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내게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입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

민의 삶을 불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도 당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했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이 말씀은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다"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최근 박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가 29%로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한을 입법부에 내줘 집권 3년차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도화선이 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회의도대로 대폭 손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파생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불구하고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 유승민 정면 겨냥... "여 원내사령탑, 경제살리기에 어떤 협조했는지 의문"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국정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했는지 의문이 간다"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점을 비판하면서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법안을 살펴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돼오는 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정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늘상 정치권에서는 언제나 정부의 책임만을 묻고 있다"고 언급했다. birakoca@news1.kr

여 당청갈등 봉합, 야 전면반발...정국 '거부권 폭풍' 요동

여, "국회법 본회의 재의 않기로"... 사태 수습 시도

야, 강력 반발하며 의사일정 '보이콧'... 국회 파행 불가피

(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유기림, 서미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거센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모습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우려했던 당·청 갈등이 현실화되면서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특히 박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해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정면 비판하면서 당·청 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부터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분주하게 거부권 정국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40여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설 정도로 격론이 오갔다.

의총에서는 친박(親박근혜)계 일

부 강성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 책임자인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보다는 유임에 힘을 실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당정청 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사퇴 요구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당청 관계에 대한 걱정대 해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일단 자세를 낮추고 당·청 정면 충돌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사퇴 요구도 몇명 있었지만 거의 절대다수가 봉합을 하고 (유 원내대표가) 좀 더 잘해주길 바랐다"며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사과할 일은 사과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도 '그 뜻을 갖고 더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사태 봉합을 시도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19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기다리다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질 경우 당·청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헌법에 "법률안에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아 재의의 요구를 계속 미루면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당·청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여야 정국 경색은 피할수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계류 중인 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211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해 국회를 통과시킨 국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좌)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우)

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메르스 병란, 국회와 국민의 (메르스를)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뜨거운 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 건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에 대한 선전포고"라고도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재의를 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의 부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의장이 결단만하면 상정은 가능하다.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표결은 성립되지 않는다.

정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ydkim@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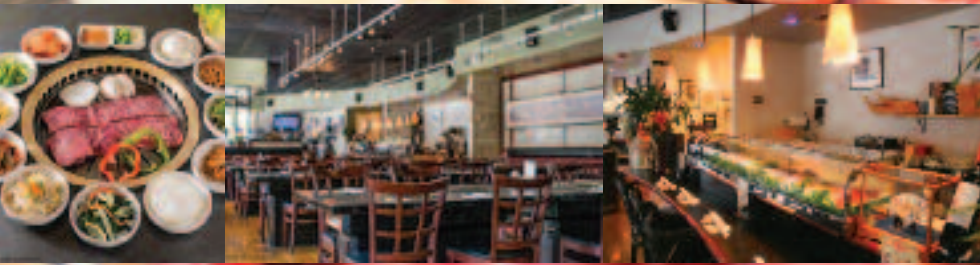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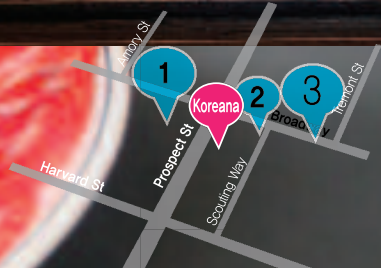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2 – 7/31
 Courses, SAT, Problem Solving
가을학기 시작 9/8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국회법 개정안 논란 그 속살 들여다보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국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가의 태풍으로 부상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개정 문구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김성우 홍보수석이 나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데 이어 다음날 각 부처에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결국 여야국회 정의를 국회의장의 중재로 재합의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의 근본적인 발단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었다. 해수부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는 지난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 및 국회법 개정안 수용 등을 촉구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특별조사위 조사과장을 검찰 공무원에게 맡기는 등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꼼수를 부려 시작됐다.

이에 따라 조사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공이 국회로 넘겨졌고, 결국 해법으로 국회법 개정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다.

이 점에 기초해 보면 문제를 자초한 당사자는 청와대이다. 청와대가 조금만 '열린 자세'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 청와대가 주장하는 '삼권분립 위배'나 '행정입법권 침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 국회법 문제의 조항도 갑자기 만들어진 듯이 언론들이 보도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존의 국회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 98조 2항은 '상임위원회는 시행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통보'를 '수정·변경 요구'로 다시 '수정변경 요청'으로 바꾼 것일 뿐이다. hsb@bostonkorea.com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책에 쓴 '하위법령 국회 통제권 강화'는 일반적 이론"

(서울=뉴스1) 김유대, 김영신 기자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본인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과 관련해 "제 책에는 일반적 이론을 써놓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저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헌법학자인 정 장관은 자신이 쓴 헌법학원론(2015)을 통해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대통령령 등 정부 입법권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ydkim@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Quincy College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iddlesex Community College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UNE 26TH - JULY 2ND,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and Instagram!

Summer's Sweetest Sale

허마트가 준비한 달콤한 과일세일전
 Enjoy our freshest of summer. Sweet, ripe fruits & fresh nutritious vegetables at our lowest prices of the season at Hmart.

FRI/SAT/SUN ONLY 26 / 27 / 28 ONLY Napa Cabbage 배추 박스 \$14.99 box	FRI/SAT/SUN ONLY 26 / 27 / 28 ONLY Fuji Apple 흑지 사과 \$0.99 lb.	USDA ORGANIC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유기농 새송이 버섯 \$3.99 8oz./pkg.	IT IS A HEALTHY FRESH VEGETABLE AND GOOD FOR ADDING NUTRIENTS TO ANY KINDS OF MEAL. Scallion 3\$1 파 bun./for	FRI/SAT/SUN ONLY 26 / 27 / 28 ONLY Radish 두 박스 \$14.99 box
---	--	--	--	---

Want E-Coupons in your inbox? Confirm your email address at any local HMART!
 각종 할인이 담긴 허마트 여름맞이 쿠폰북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蔘鷄湯 한국에서 만든 허림 삼계탕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허마트에서 만나보세요!

Harim

It's Korea's version of chicken soup, but now it's easier than ever to cook. All the ingredients are pre-packed and ready to eat. Just simmer and serve.

The Most Delicious & Nutritious Salad on Earth!

JINGA
 The Freshest Korean Tradition

KABOCHA PUMPKIN SALAD
 단호박의 진한 맛이 그대로~
 진가 단호박 샐러드
\$3.99
 11oz./pkg.

FRESH Pork Baby Back Rib (Whole Piece) 돼지등갈비 \$4.99 lb.	FROZEN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살지 슬라이스 \$7.99 lb.	FROZEN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냉동 소불고기 \$6.99 lb.	FROZEN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 목살 \$5.9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5.99 lb.	FRESH Porgy 흑도미 \$1.99 lb. FRI/SAT/SUN ONLY 26 / 27 / 28 ONLY
FULL OF PROTEIN AND AMINO ACIDS FOR GROWING CHILDREN. 700-1000's \$2.99 lb. FROZEN Beltfish 냉동 갈치	FROZEN Salted Pompano 자반 병어 \$5.99 lb.	FROZEN FILLED WITH CALCIUM & IRON. New Zealand Mussel Meat 냉동 뉴질랜드 홍합살 \$4.99 lb.	TONGTONGBAY Grilled Mini Filefish 통통배 한입 쥐포 \$5.99 6oz./pkg.	SUHYUP Premium Roasted Seaweed 수협 전장 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9.99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허림 즉석 삼계탕 28.21oz. \$9.99
MON - THU ONLY 29 / 30 / 1 / 2 ONLY NISHIKI Medium Grain Rice 니시키 쌀 15 lbs. \$13.99	MON - THU ONLY 29 / 30 / 1 / 2 ONLY ASIAN BEST Jasmine Rice 아시아 베스트 자스민 쌀 25 lbs. \$17.99	MON - THU ONLY 29 / 30 / 1 / 2 ONLY HAIOREUM Dumpling 해오름 만두 Vegetable/Kimchi/Bukkyung - 2.65 lbs. \$3.99	MON - THU ONLY 29 / 30 / 1 / 2 ONLY HUY FONG Sriracha Hot Chili Sauce 닭표 스테이크 소스 28oz. \$1.99	BULGOGI/MAEKBANSEOK/ 3.52oz. x 2ea./pkg. \$7.99	JINYANG Canned Boiled Red Bean 진양 통단팥 통조림 16.75oz. \$2.99
HAITAI Bravo Ice Cone 해태 부라보콘 Vanilla/Choco/ 140mL x 4cones/box \$4.99	AIDS IN WEIGHT LOSS, DIGESTION AND IMMUNE FUNCTION. HAIOREUM Aloe Vera Juice 해오름 알로에 베라 주스 All Flavors/1.5L \$1.99	100% NATURAL PREMIUM PEARL ROYAL Coconut Water 펄 로얄 코코넛 워터 Original/Lemon&Lime 10.5oz. \$0.99	HORMEL FOODS Spam 스팸 12oz. 2\$5 Classic/25% Less Sodium/Lite	HELLO HOME Electric Kettle 헬로홈 전기 무선 주전자 F-727/1.7L - ea. \$16.99	ZOJIRUSHI Stainless Steel Vacuum Bottle 조지루시 스테인리스 보온병 SI-SHE10/ea. \$24.99

여 '거부권' 폭풍의 하루... 파워게임 민낯 고스란히

친박 vs 비박 치열한 여론전 세 대결...향후 파워게임 격화 예고?

4시간 넘는 의총 격론...김무성-유승민 일단 박 대통령에 고개 숙여

(서울=뉴스1) 김영신, 유기림, 이정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재신임을 받은 25일, 새누리당은 하루종일 말 그대로 폭풍 속에 휩싸여 있었다.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 전까지 유 원내대표의 사퇴 등 책임론을 물으려는 친박계 강성 의원들과, 유 원내대표를 변호하려는 비박계 의원들 간의 사전 작업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의총에서도 유 원내대표 책임론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약 4시간 30분간의 의원총회 격론 끝에 유 원내대표를 유임시키기로, 국회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해 국회법을 재의결하지 않고 '폐기'시키기로 결론지었다.

표면적으로는 당청, 친박계와 비박계 간 '원인'인 셈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박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하는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 및 유 원내대표 '투톱'을 따르는 비박계 간 권력구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박 대통령 '서슬퍼런' 발언에 오전 '폭풍전야'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부산하게 돌아갔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전 작업이었다.

폭풍의 중심에 서있는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는 오전 7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당과 정부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머리를 맞대 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김무성 대표는 매주 목요일 7시 30분 퓨처라이프 포럼에 참석하지만, 이

날은 포럼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전에 잡혀있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때문에 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것인데, 이 녹화에 함께한 몇몇 의원들과 자연스럽게 거부권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오전 9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을 자동 폐기시켜야한다"고 했고, 역시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헌법 가치 수호에 정치 생명을 과감히 거는 분"이라며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비박계지만 최근 연일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선봉에 서있는 김태호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을 재의에 부처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묻겠다"고만 했다.

비공개 최고위가 진행 중이던 오전 10시께부터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타전되기 시작했다. "국회법이 국가 위기를 초조했다", "당 지도부 저의가 무엇이나", "여당 원내사령탑(유 원내대표)이 경제 활성화에 어떤 협조를 했는지 의문이다" 등 초강수 발언들이었다.

비공개 회의 도중 당 지도부는 곧바로 박 대통령 모두발언을 서면으로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한 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결론을 냈다.

내부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서슬퍼런 발언에 '멘붕'했다는 반응들이 비박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발언 수위가 지나쳤다는 게 비박계 기류였다. 한 비박계 의원은 "대통령이 우리를 야당 취급한다"고 불멘소리를 했다.

비박 성향의 일부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찬을 겸한 긴급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유 원내대표 사퇴를

막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상현·김태흠 등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려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론 제기엔 힘을 실어달라"고 도움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와 비박계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자 여론전에 몰두하면서 일종의 '표단속' 대결을 펼친 것이다.

◇박친위대 vs 김-유 친위대 의총서 '대격돌'

오후 1시 40분께부터 6시 20분까지 4시간 넘게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처리 방안과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의총에 대해 한 의원은 "박 대통령 친위대와 비박 투톱 지도부 친위대의 대결"이라고 총평했다. 그 정도로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는 뜻이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40여명 의원들이 릴레이 발언에 나서며 갑론을박을 펼쳤다.

의총 총의는 "대통령의 뜻을 모아 국회법을 재의에 부치지 않고 폐기한다"고 모아졌고, 수적으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원하지 않는 의원들이 대다수인 탓에 유 원내대표는 재신임됐다.

하지만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의총 말미부터 유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 사퇴를 제기해왔던 김태흠·이장우 의원이 재차 사퇴를 촉구하자, 강성 초선인 김진태 의원도 사퇴 촉구에 동조했다.

김 의원은 유 원내대표는 물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까지 동반 사퇴하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유 원내대표 '사퇴'를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수위가 격양된 발언으로 유 원내대표를 몰아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무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여당 내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얼굴로 자리하고 있다

성 대표가 발언이 지나치다고 자제를 촉구했다고 한다.

수적으로 비박계 의원들이 친박계 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유 원내대표 사퇴론에 큰 힘이 실리지는 않았으나, 곳곳에서는 불만이 감지됐다.

범친박계 초선인 정용기 의원은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한다면 (비박계 다수 의원들이) 단합해서 잘하자고 하는 얘기는 의미없는 공허한 소리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뚱개고 단합하지는 건 말이 안된다"고 사실상 유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친박계 초선 의원인 김현숙 의원 역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당청이 단합하지는 것은 어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정무특보이자 유 원내대표 '비토' 선봉에 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발언하지 않았다. 윤 의원과 같은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친박계의 이날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엇갈린 시각이 병존했다.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불을 지핀 유 원내대표 사퇴론이 전혀 먹혀들지 않아 친박계가 다소 위축됐다는 얘기가 일단 나왔다.

반면 친박계가 일단 '국회법 폐기'를 얻어내기 위해 유 원내대표 사퇴론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있다. 언제든 유 원내대표 사퇴론을 제기할 여지

를 남겨 언제든 노골적으로 비박 지도부를 견제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얘기도 있다.

◇투톱 복안 대로 일단 수습시도... 휴화산 당청갈등

김무성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유 원내대표가 원래 까칠한 사람인 줄 알고 뽑아준 게 아니냐"며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면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과 의총 후 인터뷰에서 "당청 간 소통 부재에 송구하다"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청 갈등이 수습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하루종일 당이 폭풍에 빠져들고, 결국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한발 물러선 것은 여전히 당청관계가 수직적이라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당직자는 "유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게 만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 뿐이라는 사실이 오늘 드러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집안 싸움에 진을 빼는 사이, 야당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빠졌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의사일정을 중단해 이날 국회가 파행했다. 새누리당 의총 결과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배신정치"(이종걸 원내대표) 등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eriwhat@news1.kr

정의화 의장, 7월 1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재의키로

(서울=뉴스1) 진성훈, 유기림, 김영신, 이정우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을 내주 7월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은 이날 저녁 이 같은 뜻을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저녁 국회의장 공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부산지역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김 대표에게도 이런 뜻을 밝혔다.

앞서 여야는 6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안전 처리를 위해 7월 1일 본회의를 잡아 놓

았다. 헌법 53조 4항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돼 있다.

정의화 의장은 줄곧 이 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거부권 행사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재의에 부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상정이 이뤄져 표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미 '재의를 않기로'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이 선언될 공산이 크다.

true@news1.kr

문재인 "국회법 재의 않겠다는 여, 헌정질서 배신"

(서울=뉴스1) 박태정, 서미선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재의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란 헌정질서를 배신했다"고 규탄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서 "새누리당이 실망이 크다. 스스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표는 앞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비난한 것에 "대통령의 적반하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에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찾아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고통이 아니라 오직 권력 그 자체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정치, 통합정치, 민생정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고 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선 "대통령의 말에 꼬리를 내리는 새누리당의 처지가 딱하다"고 비난한 뒤 "국민을 위해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우리 새정치연합이 지켜낼 것이다"고 말했다.

ptj@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방역구멍에 확진 이틀만에 사망..뒤늦게 응급실 방문자 통제

173번 환자 격리대상서 빠져
확진 3일만에 사망..환자 보호
자는 명단 없어 몰라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에 보호
자, 방문자 면회 제한, 방문자
명부 작성보관

(서울=뉴스1) 이영성, 음상준 기자 = 병원 응급실 방문자들이 격리대상에서 빠지며 예상치 못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173번 환자는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서 6월 5일 76번 환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명단에서는 누락됐다. 173번 환자는 해당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보호자(요양보호사)였다.

당시 강동경희대병원에 내원했던 환자가 동행자(173번 환자)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결국 173번 환자는 다른 병의원 5곳을 전전하다가 강동성심병원에서 22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뒤 이틀만인 24일 사망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25일 응급실 환자에 대한 보호자와 방문객 면회를 제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25일 메르스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기관별로 자체 내부방직을 마련해 응급실 면회와 방문을 최소화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 응급실 방문객 명부를 비치하고 작성, 보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외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용역업체 직원을 관리를 위한 일일 방문명부를 비치한다. 방문자가 직접 작성하고 의료기관은 작성 명부를 관리 보관한다.

명부에는 방문자 이름과 연락처, 방문시간, 방문대상자 등을 기입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된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각 시도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향후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망자 2명 늘어 총 사망자 수 29명..확진자 1명 추가 180명

보건당국은 이날 173번 환자를 포함한 사망자 2명이 늘어 총 사망자 수가 29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과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도 1명이 증가해 메르스로 인한 확진자는 모두 180명으로 집계됐다. 퇴원자는 7명이 늘어 현재 총 74명이다.

신규 확진자인 180번 환자(남, 55)는 143번 환자(남, 31)와 6월8일부터 12일까지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 이후 143번 환자가 13일 확진판정을 받은 뒤인 14일부터 좋은강안병원에 코호트(1인실) 격리돼 왔다.

앞서 143번 환자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대청병원에서 전산 프로

그램을 설치하면서 16번 환자로부터 노출됐다. 이후 부산으로 내려와 3개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좋은강안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143번 환자가 접촉한 사람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3번 환자와 함께 이날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45번 환자(남, 65)이다. 모두 기저질환은 없으나 당국은 고령도 면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의 일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규 퇴원자 총 7명은 슈퍼전과자 15번 환자(남, 35)를 포함해 72번 환자(남, 56세)와 78번 환자(여, 41세), 97번 환자(남, 46세), 114번 환자(남, 46세), 126번 환자(여, 70세), 153번 환자(여, 61세)이다.

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lys38@news1.kr

감염경로 갈수록 더 아리송..메르스 종식 걸림돌

시간 갈수록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 속출..메르스 발생의 지뢰

(서울=뉴스1) 이영성, 음상준 기자 = 메르스 감염 연쇄가 길어지면서 감염경로가 모호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당국이 당초 고집했던 밀접접촉 2미터 잣대만을 적용시켜왔더니 빠지는 구멍들이 많아진 탓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분석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로가 더 흐릿해지고 있다.

24일 보건당국이 신규 확진자로 밝힌 178번 환자(남·29)는 지난달 29일부터 6월 6일까지 평택박애병원에 입원했던 아버지를 간병하던 아들이다.

당국은 평택박애병원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누구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됐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앞서 해당병원에서 경유나 확진된 사람은 두 명(52·119번 환자)이 더 있는데 이들의 감염경로조차 분석이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178번 환자는 지난달 18~29일까지 아버지가 평택성모병원 7층 병동에 입원했을 때도 병간호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8번 환자의

아버지는 6일 간암으로 사망했고 메르스 유전자 검사결과는 음성이었다.

만약 178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면 발열 증상이 16일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잠복기는 최대 30일이 된다. 이에 당국은 평택성모병원보다 일단 평택박애병원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24일 메르스 관련 브리핑에서 “178번 환자는 두 병원에 노출됐기 때문에 감염경로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78번 환자는 발열 증세가 나타난 16일부터 개인의원과 평택굿모닝병원, 다시 평택박애병원 응급실 진단을 받기도 했다. 당국은 전날인 23일 해당 의료기관 접촉자들을 조사하고 자택격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당초 그는 감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경유할 수 있었다. 관찰대상품이 좁았던 평택성모병원에 있었던 가족 간병인이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규모 크다보니 넓은 이동경로..“응급실 아니면 어디서 감염?”

지난 23일 확진자 명단에 포함됐

던 174번 환자(남·75)의 경우 감염경로가 더욱 난수표처럼 여겨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방문일이 5월도 아니고 6월 4일, 8일, 9일인데도 14번 환자가 있었던 응급실도 아니기 때문이다.

6월 14일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환자는 잠복기 14일도 지났다. 또 6월 9일부터 22일 확진되기 까지 주로 자택에 거주하면서 남한산성 등반도 하고 봉사활동도 전개했다. 6월 17일에는 수서제일의 원에도 들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일단 CCTV 분석 결과, 137번 응급실 이송요원(남·55)과 동선은 겹치지 않는다.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노출 가능성은 높지만 감염자가 어디인지 세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과 동떨어진 암병동에 있던 환자 보호자가 감염된 사례도 있다. 62세 남성인 166번 환자로 지난달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암병동에 입원한 아내를 간병했던 환자 가족이다.

어떻게 암병동에 있던 사람이 감염됐는지 경로가 알쏭달쏭하다. 115번 환자(여·77)와 141번 환자(남·42)도 응급실 밖 감염 사례인데



부분폐쇄 조치가 무기한 연장된 24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마스크를 쓴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모두 감염경로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115번 환자는 지난달 지난 27일 오후 2시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고 진료를받기전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

이후 응급실 구역에 있는 화장실을 들렀다. 이때 14번(남·35) 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됐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설명이다.

문제는 115번 환자는 여성, 35번 환자는 남성으로 같은 화장실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경로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메르스 증상이 있는데도 지난 5~8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 해당 지역을 발각 뒤집히게 만든 141번 환자는 지난달 27일 부친이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에서 외래 정기검진을 받을 때 동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응급실 내 환자만을 관리대상에 넣었던 당국의 초기 방역망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례다.

밀접접촉을 벗어난 사례들이 쏟아지면서 당국은 최근 격리 대상자 범위를 병동 전체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165번 환자(남·79)가 투석실을 사용한 강동경희대병원을 비롯해 이 병원에 있다가 입원했던 강동성심병원, 지속적으로 감염경로가 수수께끼인 환자가 나오고 있는 건국대병원 등 부분폐쇄에 들어간 상태다. 접촉자 동선도 확대해 모두 격리 조치됐다. 모두 76번 환자(여·75)가 경유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당국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24일까지가 기한이었던 부분폐쇄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lys38@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서울 on Beacon Hill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Dedicated to
Your Health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TEL: 617.576.5300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볼/여자컷 30볼/파마 70볼 부터
디지털 130볼 부터/케라틴 매직 220볼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거부권 쓰나미' 야 내홍 수면 아래로... "적전분열 안돼"

비주류, '최재성 인선' 비판하다 거부권 정국에 발언 자제

이종걸, 하루만에 최고위 참석... 일각선 거부권 정국 해소 후 재점화 관측

(서울=뉴스1) 김현, 박응진, 서미선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강행을 둘러싼 당 내홍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다.

비노(비노무현)·비주류 진영은 25일 오전까지만 해도 "부적절한 인사"라며 사무총장 인선 철회 등을 요구한 것은 물론 문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하며 문 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맞서 친노(친노무현)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 진영에선 비주류 측의 '인선 철회' 요구에 대해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오후부터는 내부 비판을 자제하며 외부에 형성된 전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비주류 진영의 인사들은 인터뷰 등을 통해 문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KBS라디오에 나와 "저는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통찰력이고, 사람을 선택하는 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람을 선택하는 눈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지도자의 힘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된 의견으로 에너지 모아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해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친노계파 청산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일각의 신당분당론과 관련, "당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볼 때 대안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야당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또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원내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김동철 의원이 사무총장직 수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이 원내대표에게 최재성 의원의 전략홍보본부장직 수용을 설득하라고 했다고 전하며 "(이는) 문 대표가 설득해야지, 이 원내대표가 설득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주류 측에선 "최 사무총장 인선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인선"이라고 '인선 철회'를 요구하는 비주류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범주류로 분류되는 한 핵심당직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표가 분명히 대안으로 제시했던 분들의 설득을 위해 하루를 유예해줬지만, 이 원내대표는 당직 인선 발표 전까지도 설득을 제대로 못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비주류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친노 진영의 한 핵심 의원은 "1~2달 지켜보면 최 사무총장이 정말 사심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당무를 집행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의 장기인 추진력과 기획력을 발휘하면서 사무총장을 잘 해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봐도 당무집행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버티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 당내 분위기는 180도 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라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행령 수정요청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을 비판한 것은 물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예상치 못한 강도의 발언을 쏟아냈고, 새정치연합은 '최재성 파문'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당장 '최고위 불참'을 선언했던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 최고위에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무복귀냐"는 질문에 "(지금은) 거부권 정국"이라고 말했다.

당초 최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됐던 의원총회에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법 개정안 재의 결을 포기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으로 대체됐다. 비주류측의 한 의원은 "지금

은 외부에 커다란 전선이 형성된 만큼 적전분열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상황 아니냐"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정쟁 중단을 촉구하며 사무총장을 공천과 관련된 모든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최 사무총장이 "혁신위의 어떤 제안도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내홍을 일단 잠재우는데 변수로 작용했다.

다만, 이번 파문의 본질이 '계파 갈등'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정국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 친노 패권주의 논란은 또 다시 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이로 인해 당내에선 문 대표가 당초 유임으로 가닥을 잡은 정책위의장직을 비주류측에 배려하는 것으로 당 내홍의 수습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핵심당직자는 정책위의장직

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당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더 이상 오래 가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재선 의원은 "애초에 정책위의장직을 비주류측에 배려하고 나서 사무총장 인선을 했으면 몰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직을 비주류측에 주면 결국 이 원내대표를 정책위의장 언어내려고 깽판을 부린 사람으로 만드는 것 밖에 더 되느냐"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래선지 일각에선 자성론도 나온다. 수도권 초선 의원인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명약관화한 공멸의 길로 더이상 가지 말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욕망과 기득권을 진정으로 내려놓은 후에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한 자기성찰과 상호용서에 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문재인, '최재성 인선' 비주류 반발 속 대책 고심

(서울=뉴스1) 김현, 박상휘, 서미선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강행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문 대표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23일 이종걸 원내대표 등 비노(비노무현)·비주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한지 하루 만인 24일 이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를 불참하는 등 당무를 거부하고 사무총장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김관영 의원도 수석사무부총장직을 고사하는 등 비노·비주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더욱이 비주류측의 반발은 당 밖의 천정배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점차 확산될 조짐까지 엿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표가 비주류 진영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문 대표는 25일 6·25 전쟁 65주년 기념식과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입장권 현장판매행사 등에 참석하는 등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현장 행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전날 비노 진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40년 전 복무했던 1공수특전여단을 방문해 "튼튼한 안보가 바로 평화이기도 하고, 경제이기도, 민생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안보 행보'에 집중했었다.

문 대표의 한 측근은 뉴스1과 통화에서 "사무총장 인선은 분명히 대표의 권한이지만, 당내 의견수렴을 위해 그동안 인선을 늦춰왔던 것"이라며 "이제는 인선이 마무리됐으니 국민들을 상대로 민생행보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문 대표의 민생행보가 자칫 '마이웨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원내대표 등과 만나 반발을 잠재우는 작업도 병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 원내대표와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한 관계자는 "당내 화합을 위해 (비노측과) 만나서 소주 한잔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표가 당초 '유임'으로 가닥을 잡은 정책위의장직을 비주류측에 배려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원회가 사무총장을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재웅 혁신위 대변인은 통화에서 "예전에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당권을 가진 당

대표의 지시에 의해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한 제도적 차단방안을 강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아직까지 합의하진 못했고, 향후 공천제도 개혁안을 다룰 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목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유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휴람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다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시간	비율	비율
유급기간	47~50	47%	50%
유급기간	91~	91%	103%
유급기간	228~	228%	240%

휴람 제휴 이벤트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로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비	수술비	수술비	수술비
40000	290만원	30000	400만원
50000	390만원	35000	450만원
		30000	5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세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무삭제 라미네이트	오스템 미백 1회
	150만원 → 120만원	80만원 → 60만원	20만원 +1회 제공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세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디고 에스테틱 특별할인

스페셜 힐링 케어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스페셜 슬리밍 케어
19만원 → 15만원	20만원 → 16만원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전신 고주파 케어	
32만원 → 26만원	38만원 → 30만원	



www.huramkorea.com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mkorea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Korean) 4:30pm(Korean)
Weekday Tuesday 10:30am(Korean), Thursday 7:30pm(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2015년 9월7일까지
2015년 9월20일-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작은 삶이 많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배치 기뻐합니다 (8월 31일)

담임목사: 우시창
연 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NewHampshir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턴 남부지역 보스턴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건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에서 알찬 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5 여름방학 선행학습 프로젝트

3 주 완성반
 1st: June 29-July 17
 2nd: July 20-August 7
 3rd: August 10-August 28
 오전수업: 9:30AM - 12:30PM
 오후수업: 2:00PM - 5:00PM

- High School**
- ACT Preparation
 - New PSAT (2015)
 - Algebra
 - Geometry
 - Chemistry
 - Physics
 - English Composition

최고의 강의와 최강의 관리프로그램으로 매일 3시간의 수업 후 3시간의 과제시간을 두어 교과과정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와 학업성취도를 높입니다.
 모든 수업은 8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진행되어 자리가 한정되어있으므로 오늘 상담신청하세요!

- Middle School**
- English Language Arts
 - Pre-Algebra
 - Algebra
 - Geometry

수업은 3시간이며 월-금 (주 5일) 입니다.



617-492-2722



Harvard Square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 ask@theacademy.ac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탐 브래디의 항소와 관련한 FAQ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스타 쿼터백 탐 브래디가 지난 23일 뉴욕에 위치한 NFL 사무국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내려진 처벌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진행했다. 브래디는 디플릿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에게 내려진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11시간에 걸쳐 NFL에 항변했다.

지난 2014 시즌 수퍼볼 우승을 포함하여 패트리어츠를 4번이나 수퍼볼 우승으로 이끈 수퍼스타답게 브래디의 출장 정지 처벌과 항소는 세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브래디의 항소와 관련하여 풋볼팬들이 가장 궁금해 할 5가지 질문에 대하여 ESPN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자.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4주에서 6주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브래디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나?

브래디는 항소 심리에 앞서 정식으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시작했다. 이는 브래디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브래디가 항소에 앞서 선서를 했다는 것은 본인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브래디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향후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NFL이 아닌 검사가 브래디를 기소할 수 있다.

동시에 선서를 하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브래디는 NFL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 수 있다. 형사 처벌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NFL은 언제 결정을 내릴까?
NFL 사무국과 NFL 선수노조 사이에 합의된 조항에 의하면 선수에게 내려진 처벌에 대하여 항소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실현 가능한 선에서 빨리(as soon as practicable)" 내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뜻이다.

가정폭력 혐의로 2015 시즌에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그레 하디의 항소를 예로 들면, 하디는 약 한 달 전인 5월 28일에 항소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NFL 사무국에는 누가 브래디와 함께 들어갔나?

브래디는 자신의 에이전트인 돈 이, NFL 선수노조 변호사인 헤더 맥피와 동행했다.

만약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패트리어츠 쿼터백 탐 브래디가 자신에게 내려진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에 항소하기 위해 NFL 사무국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경우 브래디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

브래디는 항소를 통해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사라지고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줄어들지 않거나, 1-2 경기만 줄어들 경우에는 연방 법원에서 NF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브래디의 자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NFL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더 험거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항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구

체적인 내용이 공개될까?

항소 심리와 이에 따른 중재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밀에 부처진다. 만약 이와 관련해 브래디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다.

jsi@bostonkorea.com

[MLB] 9경기 ERA 1.79에도 무승... '억세게 불운한' 그레인키

(서울=뉴시스) 권혁준 기자 = 9 경기동안 퀄리티스타트 8회, 평균 자책점 1.79에도 승리는 없다. LA 다저스의 잭 그레인키가 억세게 불운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레인키는 2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벌어진 2015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3피안타 2볼넷 5탈삼진으로 호투했지만 0-0으로 맞선 7회 마운드에서 내려와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다저스는 연장 접전 끝에 0-1로 패했다.

그레인키는 시즌 6승 달성에 또 다시 실패했다. 그레인키가 마지막으로 승리투수가 된 것은 지난달 6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이 마지막으로,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고 있다.

그레인키는 5승을 따낸 이후 9차례의 선발 등판에서 60%이닝을 던지면서 12실점(12자책점), 1.7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지만 승리없이 1패만을 기록했다. 9번의 등판 중 그레인키가 부진했다고 할 수 있는 경기는 지난 3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기록한 6이닝 5실점 경기였다.

이 경기를 제외한 8경기 평균자책점은 1.16에 이른다.

9경기 중 구원진이 승리를 날린 경기가 3차례였고, 나머지는 타선의 난조로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경우였다. 다저스는 그레인키가 선발등판한 최근 9경기에서 23득점(평균 2.6득점)을 내는 데 그쳤다. 3일 콜로라도전에서 낸 9득점을 제외하면 8경기 14득점으로 경기당 2점이 채 되지 않는 빈타였다.

미국 현지에서도 이같은 그레인키의 '불운'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24일 '그레인키의 억세게 불운한 시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ESPN이 제시한 '불운한 선발투수'(1실점 이하의 실점을 내주고도 승을 따내지 못한 경기) 카테고리 살펴보면 그레인키는 '역대급'의 불운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레인키는 올 시즌 8경기에서 1실점 혹은 무실점의 호투를 펼치고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펠릭스 에르난데스(시애틀 매



잭 그레인키(LA 다저스)

리너스)와 제프 사마자(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한 시즌 동안 기록한 '불운'과 같은 수치다.

또한 그레인키는 2009년 이후 32경기에서 1실점 이하 피칭 후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이는 메이저리그 선발투수 중 가장 많은 '불운'이었다. 2위가 에르난데스(31회), 3위는 그레인키의 동료 클레이튼 커쇼(26

회)였다.

하지만 정작 그레인키는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레인키는 컵스전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팀 선수들은 뛰어난 선수들이다. 시즌이 끝날 때 보면 모두가 제 몫을 해내고 있을 것"이라며 동료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레인키의 다음 등판은 오는 29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으로 예상된다. 그레인키가 5승 달성 이후 10번째 등판에서 '불운'을 끊어낼 수 있을지, 다저스 동료들은 그레인키의 믿음에 화답할 것인지 주목되는 경기다.

starburyny@news1.kr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원병원당시, 백내장, 녹내장, 안압검사, 안저검사, 안과내과, 안과외과, 안과수술, 안과수술, 안과수술
-25만원 → 20만원
- 4050라식/라섹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 백내장 수술 (단안) 일반 백내장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40대 50대 가장
화사하게!!
안과에 방문할
안과 의사 한
사람.

속(?) “젊은 여자가 아름답다”

5% OFF

질 이완,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20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리타이팅/임플란트/영동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 소음수술 200~4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정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박열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전 유과술, 인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업골)	안면거상술 (목 포함)	메쉬 리프트
-700만원 → 500만원	-800만원 → 600만원	-3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하안검	중안면 거상
-200만원 → 150만원	-200만원 → 150만원	-300만원 → 200만원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a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제품

어머님&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효도 라디오



- 숫자버튼을 이용한 초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폰, 노트북, 넷북, MP3플레이어 등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비상용랜턴 가능
- 탈착식 리튬이온 충전배터리
- LED디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이어폰단자 채용 (스테레오)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우퍼채용
- 핸드스트랩 기본장착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택일)

\$79
(가요5200곡 +
성경&찬송가)

- 한국 가요
- 트로트
- 성경 찬망라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 617-955-9112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0,860
Sharon, MA
3 Beds, 2.5 Baths, 2344 sf.
Near center of town location
New roof in 2014,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450,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1666 sf.
Great Value! 좋은 학군
Lovely private 1 acre lot.
이현주 401-935-339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 Baths, 1266sf.
Great Location!!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60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 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60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s, 3498sf.
Maintained 2002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25,000
Canton, MA
3 beds, 2.5 baths, 1848 sf.
Charming cape in a great
Convenient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625,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349,9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50,000
Amherst, MA
한국에서 오래 장사한곳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

한국프랜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반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525
Acton, MA
2 Beds, 1bath, 820sf.
안전하고 좋은 학군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Restaurant \$547,9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20,000 Boston, MA Beer&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l 617-792-8842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3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적인 광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이크,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부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적인 혼마구로 참치, 스크램블, 생선, 라미,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업스톤에 위치한
최희 오빠스시에서
상징적이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26 June 26 2015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강된장에 동치미 물국수까지

전주맛집 우리(WooRi)

업소탐방 293

우리(WooRi)

9 Medford Street, Arlington, MA 02474
781-648-4781
wooriarlington.com

Welcome, **7D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한는 한국 방송 언한는 시기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유감없이 티보를 시청하세요

6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6월 30일까지 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6월 시청료 무료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의 전주맛집인 '우리(WooRi)' 가 지난 봄을 맞아 새롭게 출시한 신메뉴, 강된장과 동치미 물국수는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입맛을 돋구어 밥 한 그릇 딱딱 해치우게 하는 강된장은 그야말로 밥도둑이다. 기름기를 짝 빼 훈제 삼겹살 또는 훈제연어와 곁들여 먹을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생야채가 푸짐하게 올라가 더욱 건강한 맛이다. 입맛이 없을 때, 다이어트 중이지만 맛있는 요리가 먹고 싶을 때 추천하는 요리다. 신기할만큼 외국인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남은 강된장을 소면이나 파스타, 샐러드와 곁들여 먹어도 그것이 일품.

전주 전통, 명인의 손맛을 이어받은 전주비빔밥을 주 메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강된장이 우리 식당의 효자 메뉴라고

한편, 우리 식당이 무더운 여름 시즌을 맞아 냉면 대신 선택한 것이 바로 동치미 물국수다. 얼음이 동동 떠있는 새콤한 동치미 물국수는 보고만 있어도 한여름 더위가 싹 가실 기세다.

우리 식당의 동치미 물국수는 양지머리 육수와 동치미 육수를 5:5 비율로 섞어 담백하고 시원한 맛

을 동시에 잡는다. 면은 기호에 따라 소면이나 메밀 국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동치미 물국수 사이즈는 대(大)자와 소(小)자가 있는데, 강된장을 주문하는 손님은 물국수 소자를 \$5에 즐길 수 있다. 식사 후 입가심 메뉴로도 딱이다.

이처럼 우리 식당은 다른 한식당들과 메뉴의 차별화를 두겠다는 포부를 안고 보스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메뉴를 선보인다. 김치전이나 해물 파전은 없지만 감자전이나 빈대떡이 당당하게 메뉴판에 올라와 있다.

우리 식당의 감자전이라면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대박' 에피타이저이다. 즉석에서 감자를 갈아 노릇노릇 부쳐 나오는 감자전은 식어도 여전히 쫄쫄하고 바삭한 식감이 남아있다. 빠른 입소문을 타고 금세 인기 메뉴가 된 감자전은 그야말로 '엄지 척' 이다.

늦그릇에 정갈하게 담아 나오는 전주비빔밥으로 많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 식당은 전주식 콩나물밥, 강된장 등의 신메뉴 출시로 꾸준한 단골손님이 늘고 있다. 우리 식당의 라사장은 "한인 손님 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우리 식당의 음식을 좋아해 주어서 행복하다" 는 말을 전했다.

이어 "남들은 (우리 식당을) 레스토랑이나 식당으로 불러주는데, (나는) 그저 작은 구멍가게라고 부르고 싶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구수하고 정감가는 구멍가게가 되고 싶다" 고

우리 식당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런치 브레이크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이다. 토요일은 런치 브레이크 없이 영업하며 일요일은 오후 5시 30분부터 연다.

dyoo9146@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배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열여섯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긴급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제청	617-536-7469
남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소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청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역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시간문의	617-492-8300
아동보호	617-637-123
아동학대	617-748-2000
알고음/마약	800-792-5200
여성학대	617-445-1500
온전연허	617-248-0922
텔레어	617-351-4500
자랑봉사	617-348-8500
적십자	800-522-8086
전화신청 (Verizon)	800-564-1234
전화교정신청(Verizon)	800-941-9900
택시	617-555-1515
AAA	617-343-4475
FBI	800-222-4357
MBTA	617-741-5533
NSTAR가스	800-392-6100
NSTAR 전기	800-572-9300
RCA케이블TV/전화	800-592-2000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자정신건강협회(하)	603-899-8201
뉴잉글랜드클럽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근로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총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연합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나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02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나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치 앤젤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골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타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감리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프사이드 침분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유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인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전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양구정중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르페셔널헤어디자인	978-2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국 변호사	617-239-0839
김성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지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서멘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캠프(의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치료사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그룹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7/10
브루클라인 근방 세탁소에서
프레셔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215-740-1025

7/10
세탁소에서 일하실분 구함 (프레셔-오
후 3시 이후 가능하신 분, 딜리버리)
T. 617-840-1833

7/10
풀타임 아이들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실
분(월-금), 자동차 운전 가능하신 분, 영
어가능자, 경험자 우대 myk@myk-d.com

7/24
세탁소 셔츠 출세일합니다.
(산코사 기계 사용)
T. 617-631-4915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or Sale – Nail & Spa

Owner retired, Well established
Nail & Spa in business 15 years,
6 tables, 4 spa chairs, 3 facial/
waxing room, Modern elegant de
cor, Steady clientele, Big cash fl
ow, Clients list included,
Asking for 85K,
Buyer call 781-329-2716
English or Chinese

**For Sale
Dry Cleaner
Brookline CollidgeCorner**

Well established customer and
road basd (since 1959)
New "Eco-Friendly" dry clean-
ing machine,
Asking \$299,000
Contact Carl T.617-577-9872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쓰,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7/17
캠브리지 하버드법대 근처
샌드위치 가게 판매, 매매가 \$150,000
(주인은퇴) T. 978-609-8752

5/29
N[매매]
올랜드 디즈니 인근 주유소 판매
디즈니 방향8차선 교차로 로컬물 진입
로에 위치, 일일통행량 8만대 이상
100% Absentee Owner로 운영중
순이익 \$10,000/월, 판매가 \$250,000
lifeisgoodfl@hotmail.com
T. 863-800-0109

5/1
N[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6/26
N[그로서리 매매]
그로서리 매매코저 합니다
Hot Food, 델리,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저 합니다.
T. 501-753-1691

4/24
N[매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물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 면적 1,600sf
T. 931-241-0415

4/10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4/24
N[매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썬 천일염, 인디
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4/10
N[매매]
메이컨조지아 근처
동양마켓겸 한식당매매
년매상 1밀리언 이상
건강상의 문제로 성업중인
한국마켓 및 안에 있는 한식당매매
현재 일하시는 분 7명
확실한 매상 수입,
전화문의 및 방문 환영
T. 615-714-8016

4/10
N[매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4/24
N[매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키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5/1
N[매매]
치킨링,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웨딩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웹툰 원작 '송곳', JTBC 하반기 라인업 합류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웹툰 '송곳'이 JTBC에 의해 드라마로 재탄생된다.

JTBC 측은 24일 "웹툰 원작 '송곳'이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 중 한편으로 확정돼 가을께 전파를 탈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라마 '송곳'(극본 이남규 김수진/연출 김석윤)은 JTBC의 예능 제작진에 의해 만들어진다. 기존에 없던 표현방식과 공감가는 소재 및 캐릭터 설정으로 방송계에 획을 그은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 '청담동 살아요' 등을 연출한 김석윤 JTBC 제작기획국장이 직접 메가폰을 든다. 방송 뿐 아니라 총무로에서도 '올드미스 다이어리' 극장판, 또 '조선명탐정' 등 히트작을 만들어내며 연출력과 기획력을 인정받은 실력파다.

각본 작업은 '올드미스 다이어리', 영화 '조선명탐정'까지 김석윤 국장과 함께 한 이남규-김수진 작가가 맡았다. 내놓는 작품마다 완성도와 흥행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호평을 끌어낸 드림팀의 만남이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원작의 장점을 살리되 세련되고 특화된 각본과 연출로 안방극장 시청자 층에 최적화된 작품



을 완성시키겠다는 게 제작진의 의도다.

웹툰 '송곳'은 '공룡 돌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습지생태보고서' '대한민국 원주민'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수작으로 한국 만화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 최규석 작가의 작품이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던 평범한 직장인들이 난관을 만난 후 힘을 모아 싸워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극히 현실적인 묘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촌철살인이라 할 만한 명대사들로 감동을 자아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으며 '미생'과 비교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웹툰의 팬들을 중심으로 가상 캐스팅까지 진행되고 영상화에 대한 요구가 쇄도했던 화제작이다.

제작진은 "원작과 적정수준의 싱크로율을 유지하면서도 재미와 감동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조율해 보는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예정"이라며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흥미진진한 메인 줄거리와 일상의 에피소드가 섞여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reddgreen35@news1.kr



한효주 주연 '뷰티 인사이드'

8월 20일 개봉 확정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뷰티 인사이드'가 오는 8월 관객들과 만난다.

22일 배급사 NEW에 따르면 영화 '뷰티 인사이드'(감독 백)는 오는 8월 20일 개봉된다.

'뷰티 인사이드'는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남자 우진과 그가 사랑하게 된 여자 이수(한효주 분), 두 사람이 선사하는 판타지 로맨스 장르의 영화다.

무엇보다 '뷰티 인사이드'는 주인공 우진 역에 21인 1억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배우 김대명, 도지한, 배성우, 박신혜, 이범수, 박서준, 김상호,

천우희, 우에노 주리, 이재준, 김민재, 이현우, 조달환, 이진욱, 홍다미, 서강준, 김희원, 이동욱, 고아성, 김주혁, 유연석 등 총무로 최고의 배우들이 기투합했다.

또 '뷰티 인사이드'는 칸 국제광고제 그랑프리 수상에 빛나는 인텔&도시바 합작 소셜 필름 원작으로,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뀐다는 독특한 설정을 스크린에서 어떻게 표현해냈을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수많은 우진 역의 배우들과 모습을 맞춰 처음으로 선보이는 가슴 뛰는 로맨스를 선사할 대한민국의 대표 여배우 한효주의 폭발적인 연기력에 대한 기대감 역시 증폭되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집밥 백선생' 백종원 "우삼겹 명칭 창시자는 나"

(서울=뉴스1스포츠) 유수경 기자 = '집밥 백선생' 백종원이 '우삼겹' 명칭의 창시자인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밤 9시 40분 방송된 tvN '집밥 백선생'에서는 된장찌개 편이 그려졌다.

이날 백종원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집안의 비밀"이라며 남다른 된장찌개 비법을 전수했다.

그 과정에서 백종원은 "우선 소고기를 준비한다. 우삼겹, 차돌 뭉든 좋다. 얇게 썰은 불고기 거리면 된다"고 말

했다. 그는 우삼겹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며 "우삼겹이란 이름의 창시자는 나"라고 강조했다. 출연진들은 "알아, 알아"라고 말하며 빨리 넘어가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집밥 백선생'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누구나 집에서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생활 밀착 예능 프로그램이다.

uu84@news1.kr



'극비수사' 150만 관객 돌파 목전, 공통 물리친 흥행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극비수사'가 15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영화 '극비수사'(감독 곽경택)는 지난 23일 814개 스크린에서 13만7204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145만7707명을 기록,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했다.

이로써 '극비수사'는 지난 18일 개봉 이후 2015년 개봉된 한국 영화 중 최초로 최단 기간 안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빠른 시간 내에 150만 관객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체급이 전혀 다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쥬라기 월드'와의 경쟁에서 이 같은 흥행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적이다.

한편 '극비수사'는 1978년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사건, 사주로 유괴된 아이를 찾은 형사와 도사의 33일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김윤석과 유해진 등이 출연했다.

aluem_chang@news1.kr



2015.06.18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6월 15일 ~ 6월 21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3.7%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2.3%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19.3%
4	KBS1	KBS9시뉴스	18.7%
5	MBC	무한도전	16.5%
6	KBS2	금토드라마(프로듀사)	15.7%
7	KBS2	해피선데이	15.1%
8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3.9%
9	KBS1	전국노래자랑	13.4%
10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2.7%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2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3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4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5	MBC	창사특별기획(화정)
6	KBS2	금토드라마(프로듀사)
7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8	MBC	복면가왕
9	SBS	(월화드라마)상류사회
10	SBS	드라마스페셜(가면)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Feat. Young K) 백아연
- 02 뱅뱅뱅 (BANG BANG BANG) BIGBANG
- 03 WE LIKE 2 PARTY BIGBANG
- 04 마음 아이유
- 05 LOVE ME RIGHT EXO
- 06 LOSER BIGBANG
- 07 그리고 안녕 이승기
- 08 BAE BAE BIGBANG
- 09 꺼내 먹어요 Zion.T
- 10 Me You (Feat. 백예린 Of 15&) San E

숫자 퍼즐 (Sudoku)

				5	3		8	
2		4	1				9	
		8	9			5		1
	6						5	
9		5	4		8	6		2
	2						4	
3		1			4	7		
	4				1	9		5
	8		3	7				

6월 28일 - 7월 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흑백을 분간하지 못해</p> <p>●운수: 흑백을 분간하지 못해서 혼돈이 생기는 때입니다. 잠시 관망하도록 하세요. ●금전: 소문난 잔치에 먹을 없다고 하듯이 계획은 크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겠습니다. 큰 실속이 없이 지나갑니다. ●애정: 두 사람의 사랑이 점차적으로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리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30, 3일 길일, 2, 4일 주의.</p>	<p>소띠 적당히 선을 그어야</p> <p>●운수: 신중해야 할 상황과 급하게 서둘러야 할 상황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군요. 수면 부족이 제일 큰 적인 때입니다. ●금전: 책임질 수 없고 실행력이 없는 말뿐인 약속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세요. 금전 문제에 있어 신용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애정: 적당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있는 사이가 되기 어렵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9, 4일 길일, 30, 3일 주의.</p>	<p>범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p> <p>●운수: 가까운 사람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자 신감을 얻고 효과적으로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금전: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포용하는 마음을 내야 자신에게 많은 이로운이 돌아옵니다. ●애정: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신이 편안해지며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 3일 길일, 28, 4일 주의.</p>
<p>토끼띠 내일의 재산은 건강</p> <p>●운수: 일이 지연되고 짜증이 나더라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유 있는 마음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되어줍니다. ●금전: 내일의 재산은 건강입니다. 재물을 얻고 건강을 잃는다면 부질없는 것이니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세요. ●애정: 평소 애정하던 사람도 냉정해지거나 주위 사람과 편안한 관계를 지속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8, 1일 길일, 29, 3일 주의.</p>	<p>용띠 생각이 필요한</p> <p>●운수: 한때는 어려움에 부딪쳐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할 수 있는 운세이니 희망을 갖도록 하세요. ●금전: 돈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애정: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생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구태여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9, 4일 길일, 28, 30일 주의.</p>	<p>뱀띠 자신감을 가지고</p> <p>●운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니 더 반가울 것입니다.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금전: 가까운 친구가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 찾던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애정: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주위에서만 맴돌다가는 좋은 상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0, 4일 길일, 28, 1일 주의.</p>
<p>말띠 마음과는 다른 결과가</p> <p>●운수: 항상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체크하고 또 체크하도록 하세요. ●금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같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세요. ●애정: 자신이 유리하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상대를 휘어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 4일 길일, 29, 2일 주의.</p>	<p>양띠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p> <p>●운수: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살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니 자신감으로 대처하도록 하세요. ●금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운세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가까운 거리에 당신에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8, 2일 길일, 29, 30일 주의.</p>	<p>원숭이띠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p> <p>●운수: 진정한 강자라면 약자를 끌어안아 주어야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관대한 태도로 대할 때입니다. ●금전: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크나큰 변화가 없는 한 유지지만 노력한 만큼의 재물이 늘 것입니다. ●애정: 마음은 있으나 적당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군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9, 3일 길일, 1, 2일 주의.</p>
<p>닭띠 정확하게 해두어야</p> <p>●운수: 법적인 문제, 문서, 서류 처리 등을 정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검토 분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전: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는 때이니 수입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주입니다. ●애정: 정을 배분하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주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0, 4일 길일, 29, 2일 주의.</p>	<p>개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p> <p>●운수: 주위 사람들이 협조자가 되어주니 일의 성취가 쉬울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주입니다. ●금전: 금전이 좋습니다. 좋은 문서도 손에 쥐게 되는 운이기도 하니 발전의 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주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1, 2일 길일, 30, 3일 주의.</p>	<p>돼지띠 미루지 않도록</p> <p>●운수: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세요. ●금전: 크게 손해를 보는 시기는 아니지만 크게 이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시기라 하겠습니다. 현상유지에 만족하도록 하세요. ●애정: 상대도 역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자신의 감정전달이 잘 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9, 2일 길일, 1, 4일 주의.</p>



'SHAKE IT' 뮤비 속 강균성 찾기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컴백 씨스타 'SHAKE IT' 뮤직비디오에 강균성이 출연해 화제다.
 씨스타 측은 22일 공식 트위터에 “씨스타가 'SHAKE IT' 으로 컴백했어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각기 다른 개성의 씨스타 멤버 모습뿐만 아니라 강균성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강균

성은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며 뮤직비디오 곳곳에서 등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컴백 씨스타 이번 노래 대박이다”, “컴백 씨스타 뮤비 재미있다”, “컴백 씨스타 뮤비에 강균성도 출연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씨스타는 22일 정오 새 미니앨범 '쉐이크 잇'을 발표하고 가요계에 컴백했다.
 poolchoya@news1.kr

AOA, '심쿵해' 뮤비 이틀 만에 200만뷰 눈앞

(서울=뉴스1) 이경남 기자 = 걸그룹 AOA가 음원에 이어 영상으로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으며 여름 걸그룹 대전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선점했다.
 22일 오전 0시 공개된 AOA 세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심쿵해' 뮤직비디오는 공개한지 하루가 채 안 돼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를 넘긴데 이어 24일 오전 7시 180만 뷰로 2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심쿵해' 뮤비 영상에는 5300개가 넘는 전 세계 팬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며 AOA의 뜨거운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22일 중국 대표 음악 전문 사이트 인위오티에 게재된 '심쿵해' 뮤직비디오 역시 24일 오전 조회수 135만 뷰를 넘어서며 '글로벌 대세'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AOA는 '심쿵해'가 24일 오전 2개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사흘째 차트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K-POP 팬들 사이에 인기 지수로 통하는 유튜브 조회수는 물론 중화권 팬심을 반영

한 현지 차트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내수시장을 넘어선 글로벌 대표 걸그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이는 멤버들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역량과 매력이 국내외 팬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OA의 신곡 심쿵해는 한 귀에 쏙 들어오는 감각적인 멜로디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돋보이는 상큼 발랄한 서머송이다.
 lee1220@news1.kr



소유, 8kg 감량 다이어트 식단 '노른자 뺨 메추리알+우유'

(서울=뉴스1) 이경남 기자 = 씨스타 소유가 혹독한 다이어트 경험을 공개했다.
 최근 진행된 온스타일 '갯잇뷰티' 녹화에서는 '갯잇뷰티 MC들의 스페셜 뷰티 강연'을 주제로, 약 200명의 관객들 앞에서 MC들이 직접 준비한

알짜배기 뷰티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 가운데 MC 소유는 '여름이 즐거운 소유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달 만에 8kg을 감량했을 적 다이어트 히스토리를 낱알이 밝혔다.
 소유는 당시를 떠올리며 "미친 듯이 운동하고 미친 듯이 안 먹었다"고

요약했다. 이어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핫요가, 웨이트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 안무연습, 러닝을 반복했다. 음식은 한끼에 노른자 뺨 메추리알 4개와 우유 한 컵만 마셨다"고 고백해 관객석을 술렁이게 했다.
 소유는 이어 "근데 여러분은 그렇

게 할 필요 없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직접 해보니 힘들어서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정성 넘치는 조언을 아낌없이 전했다.
 한편 소유의 다이어트 히스토리는 24일 밤 9시 방송됐다.
 lee1220@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공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의 신부' 이시영, 엘리트 형사로 변신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아름다운 나의 신부" 이시영이 공식 포스터 비하인드 이미지를 공개했다.

4일 OCN 새 토일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 측은 열혈 형사 차윤미 역을 맡아 새로운 도전을 예고한 이시영의 포스터 촬영 스케치 컷을 공개하며 드라마를 향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공개된 사진 속 이시영은 타이트한 진과 검은색 가죽 재킷으로 강인한 인상을 풍겼다. 손에 쥐 총과 예리한 눈매 역시 날카로운 촉을 지닌 형사의 면모를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저 강하지만은 않았다. 한층 깊어진 이시영의 눈빛은 강한 흡입력으로 보는 이들을 끌어당기며 또 다른 이야기를 암시했다.

이시영이 분한 차윤미는 삼십 대 초반의 여자 경감으로 경찰대 출신 엘리트 형사다. 뛰어난 업무 능력이 타고난 천재성 때문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차윤미의 흑독한 노력이 숨겨져 있다. 일과 다르게 사랑엔 서툴지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지닌 외유내강의 인물이다.



이러한 차윤미의 내면을 살리기 위해 이시영은 그 어느 때보다 캐릭터 분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과 날렵한 동작으로 거친 액션도 마다치 않는가 하면, 일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감정을 숨기고 늘 냉철함을 유지해야 하는 차윤미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보는 이들

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아름다운 나의 신부'는 사라진 신부를 찾기 위한 한 남자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분노를 그린다. 20일 밤 11시 첫 방송.

reddgreen35@news1.kr

티보플레이 6월 3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2 | MBC | 여자를 울려 |
| 3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4 | MBC | 딱 너 같은 딸 |
| 5 | MBC | 화정 |
| 6 | KBS | 프로듀사 |
| 7 | SBS | 돌아온 황금복 |
| 8 | MBC | 복면가왕 |
| 9 | SBS | 상류사회 |
| 10 | SBS | 가면 |

티보플레이 6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2 | CJ E&M |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 |
| 3 | CJ E&M | 신분을 숨겨라 |
| 4 | CJ E&M | 아름다운 나의 신부 |

티보플레이 6월 3째주 최신 영화

'복면가왕' 정은지, 출연 소감 "더 열심히 노래할 것"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복면가왕' 정은지가 출연 소감을 밝혔다.

정은지는 지난 21일 에이핑크 공식 트위터에 "까꿍.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궁금해하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를 좋아해 주시고 알아봐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누리꾼들은 "복면가왕 정은지 멋지다", "복면가왕 정은지 응원한다", "복면가왕 정은지 이색 소감이다", "복면가왕 정은지 파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은지는 지난 21일 오후 4시50분 방송된 MBC '일밤-복면가왕' 에서 어머니는 자외선이 싫다고 하셨어요 출연,

김태우의 '사랑비' 를 열창해 청중단의 감탄을 자아냈다.

poolchoya@news1.kr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6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29.99

(정상가: \$39.99)

6월30일까지 모든 신규 가입자 (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6월 시청료 무료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STORY ON On Style Mnet O 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멀티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l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면적 포함. Asking \$1.95 Mil
- 3. Belmont 멀티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6. 브루클라인 콘도:** 1베드 1베스. 그라지 파킹 포함. 최상의 위치 및 학군. 주말 오픈하우스. 1731 Beacon St Brookline Unit 113. Asking \$499,900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동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독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독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 8. 헤어 액세서리 카트 매매:**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대형몰안, 좋은 위치, 안정적인 수입. Asking 55,000 인벤토리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04회

33마일(53킬로)의 1박 2일 '종주산행'을 다녀오면서...

열흘이 지난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의 그 감격과 감동이 사그라지지 않는 내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보산회(보스톤 산악회)에서 이벤트 산행으로 이맘때가 되면 한 해에 한 번씩 1박 2일의 종주산행이 있다. 지난해 2014년 종주산행은 Mt. Madison → Mt. Washington까지 이어진 긴 산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일기가 좋지 않아 거센 비바람을 마주하며 힘겹게 다녀온 산행이었지만, 일행 모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 감사했던 종주산행이었다. 그리고 다녀온 후 며칠 되지 않아 산을 좋아하는 몇 산우님들은 2015년 종주산행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번 2015 종주산행에 참석한 회원은 남자 회원 5명과 여자 회원 9명 모두 14명이 다녀온 산행이었다. 보통 산행에서 A, B, C조를 나누듯 이번 종주산행에서도 3조로 나누어서 오르게 되었다. C조는 조금은 안정된 트레일을 정하고 올랐으며 A조와 A-B조는 같은 트레일을 오르기로 하였다. 언제나 산이란 곳이 예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음을 알기에 특별히 산행을 준비하고 총괄하는 분

들의 마음과 발걸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만 큼이나 조바심이 일고 염려와 걱정이 이들의 긴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내려 놓지 못하는 것이다.

보스톤산악회 2015 1박 2일의 종주산행은 33마일(53킬로)로 양 이틀간에 걸쳐 24~27시간 동안 약 10000ft에 달하는 elevation gains의 산행이었다. 첫날 산행은 Franconia notch를 커버하는 Mt. Flume, Mt. Liberty, Mt. Haystack, Mt. Lincoln과 Mt. Lafayette를 거쳐 Mt. Garfield를 이어 험하다 험한 Garfield Ridge trail을 오르내리며 Gailehead Hut까지 도착하였다. Gailehead Hut까지 도착하기까지 A조는 13시간 그리고 A-B조는 15시간 동안의 길고도 험준한 17.3마일의 첫날의 산행을 마친 것이다. 몸의 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가슴 벅찬 첫날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둘째 날은 7시에 기상하여 각자 산행 준비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침 8시에 출발 16.2마일에 해당하는 Pemigewasset Winderness loop을 오르기 시작했다. Mt. South Twin과 Mt. Bond, 그리고 이번

종주의 하이라이트인 Mt. Bondcliff Trail을 거쳐 길고 긴 Mt. Wilderness trail과 Mt. Lincoln Wood trail을 타고 하산하게 되었다. 내려오는 길에 2시간 여 정도를 보산회 산우님 두 분이 오셔서 시원한 얼음물과 과일을 준비해 기다리고 계셨다.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고 가슴 벅찬 감사가 차오르는 순간이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 어떤 일에 있어 크든 작든 간에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참된 보람이 되는 것이다. 이번 종주산행을 위해 처음부터 노심초사 준비를 하며 마음 졸였을 산악회 회장님과 인솔을 담당할 산우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여러 산우님들이 있어 14명의 산우들이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이 세상은 혼자만 아닌 세상임을 더불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새삼 또 깊이 깨닫는 날이다. 그 길고도 험준했던 종주산행을 다녀온 생각을 하고 다시 또 해봐도 참으로 가슴 벅차오르는 일이다.

2015 보산회 종주산행을 신청하면서 심신 단련에 주력을 했다. 그것은 다른 산우들에게

혹여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였다. 또한,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의 한 부분이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동안 체력단련의 준비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나는 A-B조 그룹에 속해 여자 네 명이 함께 올랐다. 첫날 15시간의 길고도 먼 험준한 산행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서로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더 열심과 열정으로 산을 오르내렸는지도 모른다.

33마일(53킬로)의 1박 2일 '종주산행'을 다녀오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과 마주했던 시간이다. 그 숨 가쁘게 오르던 긴 산행길에서 험뎠거리는 그 거친 숨소리에 나를 맡기며 그 속에서 나 아닌 나를 또 발견하는 그 순간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다. 그 긴 시간을 함께 오르내리며 그 거친 숨소리를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동행자가 되어준 산우님들의 그 사랑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참으로 작은 나를 만나게 된다. 그 웅장함 속의 깊은 자연 앞에 서면 저절로 고백이 차오른다. 당신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만난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다시 읽는 조침문弔針文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흠내음이 훅하니 끼쳤다. 굵은 빗방울이 내리쳐서 댕힌 흠을 들쭉서 놓았던 거다. 흠냄새는 콧속을 깊게 파고 들었다. 얼마만에 맡는 흠내음인가. 쏟아진 여름비 덕분에 녹진하던 기운도 사라졌다. 말라가던 잔디도 푸른 기운을 되찾았다. 보스톤에 여름이 닥쳤다. 냉탕온탕을 오고가는 여름, 건강하십시요.

법정스님이 그의 책 무소유에서 말했을 것이다. 스님은 난을 키웠고 난을 무척 아꼈던 모양이다. 하지만 스님은 난을 사랑한게 아니었고, 오히려 짐작이었던 걸 깨달았다. 나에게 난을 입양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

워 졌다고 했으니 말이다. 하긴 스님은 김치를 시지 말라고 냇가에 담귀했는데, 장마통 불은 물에 떠나 보내기도 했단다. 김치 없이 맨 밥을 드시며 마음이 무지 짠하더라 했다. 김치 없이 먹는 밥은 밥이 밥같지는 않았을 게다. 그런데, 무소유와 무집착의 법정스님도 문방구 만큼은 또다른 애착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다른 수필집에서 스님은 문방구점을 그냥 스치기 못한다 했다. 스님의 솔직한 모습이 오히려 친근하다. 필기구만 보면 욕심이 생긴다 했으니 말이다.

옛 선비에게는 문방사우文房四友란 게 있었

다. 먹과 붓과, 벼루와 종이를 일컫는다. 종이는 백면서생白面書生이고, 붓은 죽장거사竹杖居士이다. 먹은 묵묵선사默默禪師라 했고, 벼루는 흑각선생黑角先生이 별명이라더라. 선비는 문방사우와 더불어 놀고 즐겼다는 거다. 한편, 규방 아낙은 바느질과 친했다 했다. 규방칠우閨房七友라 했고, 친구는 바늘과 골무와 가위와 자와 실 따위인 게다. 바느질에 필요한 소품들이다. 그렇다고 바느질이 뭐 그리 즐길만 했겠는가. 할 수 없으니 했던 게지. 오래전에 배웠던 조침문弔針文이다. 바늘은 규방칠우 중 하나인데, 몇 주 전 반갑게 다시 읽었다. 기억이 새로웠고, 읽으면서 감탄했더랬다. 동화마냥 아기자기하고 읽을수록 간지럽다. 마음 한구석 짠한 느낌도 누를 수 없었다. 첫 대목이다.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미망인(未亡人) 모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가운데 중요로운 것이 바늘이로대,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대. ...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낙점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

에, 바늘 여러 썸을 주시거늘, 한참 손때 묻은 것들을 잃어 버리면 마음 한구석이 뒤숭숭하다. 사소한 물건이나마, 정든 것 이라면 더하다. 예전에는 만년필이든 라이터든 뭐 그런 것들이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으면 심한 불안증에 시달린다. 모든 정보를 이 작은 물건이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요사이에는 왜 이다지도 챙겨야 할게 많은지. 지갑에, 자동차 키에, 스마트폰이다. 아참, 돋보기 안경도 챙겨야 하니, 내 주머니가 모자란다. 아예 큰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할 판이다. 언제 이 지참물과 짐착에서 벗어나 빈손과 빈몸으로 다닐 것인가.

예전엔 바늘도 중국제를 수입해다 썼던 모양이다. 국산은 잘 부러졌던가? 글썄. 예나 지금이나 뭐든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쓸 수 밖에 없는가. 스마트폰도 중국에서 만든다 했으니 말이다. 남자들은 스마트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아낙들은 무엇에 몰두하시는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0:25)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3. 유럽인들의 정착촌 건설 (3)

영국 버지니아 식민지 이주민과의 충돌 (계속)

인디언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인들도 인디언 마을과 옥수수 밭을 파괴하였으며 1623년에는 평화회담을 열기 위하여 많은 원주민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견배용 술잔에 독약을 타서 한꺼번에 200명을 독살시키기도 하였다. 1624년에는 활로 무장한 800명의 인디언들과 총검으로 무장한 60명의 영국인들이 맞붙었는데 수적으로는 원주민이 월등 앞섰으나 활과 총칼의 대결에서는 총칼이 이길 수밖에 없는 법이다. 원주민들의 옥수수 밭이 크게 파괴된 뒤에 인디언들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 때로부터 1632년 9월 양 진영 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 전까지 크고 작은 전투가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그 전쟁 와중에 영국 정착민들은 그들의 영역을 크게 확장하였으며 1634년에는 그들이 확보한 정착지를 인디언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버지니아 반도를 가로질러 약 10km에 달하는 방책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2차 전쟁이 끝난 지 12년이 지난 1644년 3월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다. 포우하탄 연맹은 남아 있는 전사들을 모두 규합하여 유럽인들의 정착 마을을 공격하여 약 500명을 죽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정착민들은 본

격적인 인디언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포우하탄 연맹소속의 부족은 물론이고 인근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거주하던 부족까지 공격하여 주변에 거주하던 인디언 세력을 궤멸시켰다. 이로써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영국인과 포우하탄 인디언과의 전쟁은 끝났다.

유럽인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였던 포우하탄 부족은 지금은 Powhatan County라는 행정구역 이름으로만 남아 있을 뿐 부족의 정체성은 역사 속에 거의 묻혀버린 상태이다. 반면에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백인과 대결하게 된 대평원지역에 거주하던 부족들은 그들의 문화 등 정체성을 오늘날까지도 온전히 잘 보존하고 있다.

북동부 해안지역에 나타난 유럽인들

영국인들이 최초로 미국 남동부의 버지니아에서 정착촌을 개척하기 시작한 1600년대 초에 북동부 지역인 뉴잉글랜드와 뉴욕 지역에서도 유럽인들이 현지의 인디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뉴욕 지역으로 진출하여 인디언들과 야생동물 포획 교역을 계속 확대해 나갔다. 한편 영국인들은 뉴욕의 북쪽에 위치한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 지역을 탐험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물물교환 형식으로 인디언들과 교역을 해왔는데 때로는 인디언들을 납

치하여 노예로 서인도제도나 유럽으로 팔아넘김으로써 항해 이윤을 불리기도 했다.

1614년에 영국 탐험가 존 스미스의 대원인 토마스 헌트에게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인근에서 납치되어 스페인으로 노예로 팔려 갔던 스완토가 구사일생 끝에 1619년 고향으로 돌아 왔는데 훗날 그 지역에서 정착촌 건설을 시작한 영국인들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일화는 미국 건국 초기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소개되고 있다. 스완토가 플리머스로 돌아와 보니 자기네 부족민의 대부분이 유럽인들이 전염시킨 천연두 또는 렘토스피로시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죽고 없는 상태에 있었다. 1610년대에 유럽인들과 접촉하였던 북동부 해안 마을의 인디언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새로운 전염병에 대하여는 아무런 면역력이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죽음으로 내몰렸다. 한 마을의 인구가 전멸하는 경우도 속출하여 북동부 해안에는 버려진 마을이 즐비하였으며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플리머스 인근의 원주민들의 세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훗날 이곳에 원주민들로부터 큰 저항 없이 정착촌 건설을 추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스완토 일화

많은 경우 미국 건국 역사의 시발은 1620년 말에 플리머스에 도착한 102명의 이민자에게서 찾고 있다. 영국 성공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홀랜드로 이민 갔던 무리들중 일부가 홀랜드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민 길에 올랐던 것이다. 자신의 신앙에 철저하였던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은 스스로를 성자(Saint)라 불렀으며 나머지 사람들을 이방인(Strangers)이라고 불렀다. 102명이 모두 분리주의자는 아니었으며 경제적 이유 등 다른 목적으로 신대륙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끼여 있었다. 이들 102명을 태운 메이플라워호는 1620년 9월 6일 영국 플리머스(Plymouth)를 출발했다. 메이플라워(Mayflower)호는 길이 30미터의 목조 범선이었다. 청교도들은 66일간의 길고 위험한 항해 끝에 1620년 11월 11일 케이프코드(Cape Cod) 해안을 발견했다. 그곳은 그들의 당초 목적인 허드슨 강 입구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항해하기에는 너무 늦은 계절이라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인근 지역을 탐사한 뒤 12월 20일 보스턴에서 동남쪽으로 40마일쯤 떨어진 플리머스록(Plymouth Rock) 해안에 내렸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87 청도관 창시자 이원국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는 객관적인 통찰이며 명철한 서술이다.

그런데 그가 생존시 미국에서 살면서 타인들에게 나누어준 명함에는 “한국태권도 창시주(創始主), 총재 이원국(李元國)”으로 새겨져 있었다.

자신이 지은 ‘태권도교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권도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언제쯤 창시했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이 지은 책의 내용을 잊지는 않았을텐데..., 명함 몇 장이 우리나라 현대 무도의 초석을 다진 청도관 창설자의 무도철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태권도계의 원로들이나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가 ‘한국태권도의 창시주’라고 주장함을 탐탁치 않게 보거나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청도관의 창시주’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서 그의 과란만장한 삶의 일면을 살펴보면 그는 현대 태권도와 별로 연관이 없음이 나타난다. 1944년 귀국하여 당수도(일본의 가라테이며, 당시에는 ‘태권도’라는 명칭의 무도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도장을 열면서 ‘청도관靑濤館’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의 ‘도濤’는 자신의 스승인 후나고시 기친의 ‘송도관松濤館’에서 ‘도’자를 따왔으며 스승의 무맥武脈을 잇는다

는 뜻이다.

이원국은 자신의 무도철학인 호신, 건강 그리고 정신수양의 꿈을 한껏 펼치려던 무렵 일본으로 밀항을 해야만 했다. 그는 ‘반민특위’ 124)에 의해 친일파로 지목되면서도 일 하였다.(밀항 시기는 1950년, 또는 1951년 1.4 후퇴 직후로 상이한 기록이 있지만 그해 겨울이 분명한 것 같다. 6월설도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자신의 청도관 당수도를 전파하였다. 그리고 그는 1961년 4월에 귀국하였다. 그 무렵은 우리나라에서 당수도/공수도가 최흥회가 작명한 ‘태권도’란 명칭으로 정착할 때였다.(2007년 12월 3일자 ‘태권도신문’에는 밀항한지 18년 만인 1968년에 귀국하여 가장 먼저 청도관 제자인 최규식 경무관의 무덤에 참배하였다고 한다. 최규식은 김신조 일당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 당시 종로경찰서장으로 재임했으며 공비를 진압하다가 순직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원국은 태권도 명칭의 작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의 제자인 남태희가 최흥회의 부관으로 있으면서 그와 같이 작명한 명칭이다. 고국에 돌아온 이원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1963년 3월 미국 이민길에 올라 여생을 미국에서 살면서 태권도를 보급하였다. 청도관의

창시자이며 우리나라 무도(태권도)계의 거성 이원국은 96세까지 장수하고 2003년에 작고하였다.

이원국의 일본 밀항과 미국 이민을 계기로 손덕성이 청도관의 2대 관장으로 취임했고, 청도관은 분화되었다. 이용우가 서울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정도관正道館을, 강서중이 인천에서 10여개의 지관을 규합하여 국무관國武館을, 고재천이 광주에서 청룡관靑龍館을, 최흥희가 군軍에서 남태희의 도움으로 오도관吾道館 등을 창관하였다.

124)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이며,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와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등을 처벌할 목적으로 1948년 9월 7일 통과된 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반민특위는 이승만이 친일분자들의 충성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그의 노골적인 활동 방해를 받다가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해산 당하면서 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런데 이원국은 반민특위의 활동이 사실상 없었던 1950-51년에 밀항하였다. 친일로 몰려서 도일한건지 다른 이유인지 석연치 않는 부분이다.(6.25 발발 후 공산당에 부여했다는 설도 있다)

휴람계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라섹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정밀검사, 백내장, 녹내장, A스캔/B스캔 초음파검사, 전방깊이검사, 세극등 수정체 검사
-25만원 → 20만원
- 4050라식/라섹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 백내장 수술 (단안) 일반 백내장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속(?) “좁은 여자가 좁은 아름답다”

5% OFF

질이란, 볼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20분/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리타이트닝/임플란트/명품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순 수술 200~400만원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복원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안면 윤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 5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 600만원	매쉬 리프트 -3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200만원 → 150만원	하안검 -200만원 → 150만원	중안면 거상 -300만원 → 200만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법(法)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律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法度)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What other nation is so great as to have such righteous decrees and laws as this body of laws I am setting before you today? - 신명기 4:8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정치적 채김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고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잘 선택해 주셔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

오랜 침체에 빠져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소신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가 달린 정치와 국정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로 당장의 정치적 편익에 따라 정부가 따라갈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중동의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CDC와 WHO의 최고 방역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을 논의해서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적대대처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황교안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을 위한 길에만 쏟을 것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점

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권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이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 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로 보고해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 그 단적인 예로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정

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

관광진흥법을 포함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기본 법안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법안들은 길게는 3년이 다 되도록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상황 - .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비판을 받고 싶다 등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기막힌 사유들로 발 묶인 민생법안에 비통한 마음"은 게으른 국회를 정면으로 공격포문을 연 셈 - 다른 국회의 움직임을 주목할 수 밖에 - .

한국 국책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이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곡창지대인 황해남도가 80% 말라 붙었다."

식량부족 사태가 악화되면 김정은 체제에 불만이 커지고 가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량 탈북사태가 일어날 수

법법: 效也효야: 본받을 법.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그 그룹을 유지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

문제는 이 법의 조직이 "물(水)과 흙(土)과 나(人)의 세가지 요소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서 "흙(土)이 윗부분의 + (십자가)가 법의 변형을 끌어낸다. +자기가 크면 土: 官之總名관지총명 = '벼슬 사자가 되고 +자기가 작으면 土: 地也지야 = '흙 토'자가 된다.

여기서 + (열십)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틀"인 것을 표상하지만 "사랑의 증거"로 나타난

다. 가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세로 | 자는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공식이다.

한 유대인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 "What is written in the Law?" Jesus replied, "How do you read it?"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He answer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 누가복음 10:26-27

이 대화는 유대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대화에서다.

이 율법사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영생(永生)하리라):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replied, "Do this and you will live (eternal life)." - 누가복음 10:28

여기서 법의 土가 +보다 바닥이 길면 "하나님과 이웃사랑(+)+보다 날 사랑 또는 자기 자신 사랑이 더 길어 흙(土)이 되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이 자기자신보다 크면 土로 예수님 따라 하늘식구(食口)가 되어 있다"는 법이다.

法으로 +사랑이 짧으면 "날 사랑去로 예수님의 물(水= 氵)에 씻겨 내려가는 헛 믿음이 되고 +사랑이 길고 크면 去로 예수님 식구가 되는 벼슬(官)에 들어가 있다"는 보증이 증거다.

한마디로 예수님 +를 똑바로 보고 겸손하게 믿으라는... 去.



Summer 2015 Program
Sign Up Now!

Essay Writing Workshops: Middle and High School

Make essay writing easier for you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Enroll your student in a ReadWrite essay workshop where students study the elements of a quality essay and prepare, write and revise up to two essays in class.
\$150 per week/ \$125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Monday to Friday 9:00 to 11:00 AM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Summer Days Program: Grades 3 to 8

Our Summer Days program offers kids summer fun while they continue to build their reading,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skills. In between outdoor activities and creative projects, kids read, discuss readings and write related essays.
\$270 per week/ \$250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Monday to Friday 9:00 to 3:00 PM
Before care and extended day options available.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Weekly Year-Round Classes: First Grade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practice essay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and reading skills in a small class. Students improve writing skills by drafting, revising and polishing persuasive essays, opinion pieces, narratives and more. Our curriculum and class size are structured for open enrollment, and ensure that each student's needs are met. Classes are held year-round.
Class schedules can be found at:
<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
Classes: (Grades 1-12)
 • Reading/Writing Workshop (1-4)
 • Literary Analysis (5 to 8)
 • Expository Analysis (5 to 10)
 • Intensive Essay Writing (High school)
 • Tutoring: SAT, ACT, ISEE, SSAT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김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6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6월 30일까지(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6월 시청료 무료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88)

인덱스 어뉴어티의 새로운 경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발표된 '어뉴어티'에 관한 기사 내용 하나를 소개합니다.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덱스 어뉴어티의 새로운 경고(A New Warning on 'Indexed' Annuities, 6-8-2015, WSJ)"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기사 첫머리에 "만일 보험회사 직원이 인덱스 어뉴어티를 소개하고 투자자가 투자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어떤 놀랄만한 상품을 받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뉴어티는 투자하는 데 필요한 투자종목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주부들이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아서 물건을 삽니다. 시장에 있는 상품은 사람들이 사는 상품입니다.

어뉴어티는 투자하는 데 필요한 품목이 아니기에 투자자가 먼저 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팔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상품을 팔아 주는 사람한테 보상을 줍니다. 파는 사람은 보상을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어뉴어티를 열심히 팝니다. 그래서 어뉴어티는 사는 상품이 아니고 파는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어뉴어티를 파는 사람은 본인들이 보험인 혹은 재정상담가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판매원(salesman)입니다. 공짜 점심이나 저녁을 제공하며 고급 식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덱스 어뉴어티는 원금을 절대 보장하며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달콤한 말만 듣고 투자자들이 투자합니다.

2015년 첫 분기에만 인덱스 어뉴어티가 3% 증가했습니다. 3%란 \$11.6 billion을 말합니다. 같은 기간 다른 종류의 어뉴어티는 오히려 7%가 감소했으며 금액으론 \$54.4 billion을 뜻합니다.

인덱스 어뉴어티의 놀라운 판매 상승으로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Mass)이 어뉴어티 판매에 따른 세일즈맨의 성과보수(incentives)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덱스 어뉴어티를 만든 보험회사가 판매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최고급 포도주 생산지에서 4일 휴가(Four days in the heart of California's wine country at the prestigious Calistoga Ranch and Spa)

*특이한 남아프리카 여행(Trip to South Africa to visit Cape Town and Kruger National Park)

*개인 고급 배로 지중해 여행(Tour the Mediterranean on a private yacht, like royalty, celebrities, and the wealthy elite)

어뉴어티를 팔아서 받는 혜택은 이것만이 전부 아닙니다. 현금, 자동차, 슈퍼볼 크기의 반지 등도 포함됩니다. 보험회사가 어뉴어티를 판 사람에게 제공하는 이 모든 것은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뉴어티 투자 자체는 어떠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아봅니다.

투자자는 주식시장, 즉 S&P 500의 수익률이 6% 상승하면 투자한 어뉴어티도 같은 비율로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선(cap)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책정한 상한선은 당연히 주식시장 수익률보다는 적은 액

수로 책정됩니다. 또한, S&P 500지수가 아닌 보험회사의 지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상한선 역시 임의대로 재조정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에 관해서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주식배당금(dividend)은 수익률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배당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어뉴어티 투자자가 받는 수익이 그만큼 적어질 수 없습니다.

어뉴어티는 계약하는 기간은 3년에서 16년까지 평균 10년 계약이라고 윈크(Wink Inc.)회사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투자는 장기간 해야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어뉴어티에 오랫동안 묶여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뉴어티는 보험상품이지 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뉴어티는 이해하기 복잡하고 비싼 금융상품입니다. 보험회사는 어뉴어티를 팔아주는 사람에게 높은 수수료(commission)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하기 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입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18년: 독감 그리고 전쟁

1914년 6월 28일 -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 중이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공 부부가 18세의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했다.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보스니아를 발칸으로 삼아 발칸 반도에 진출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세르비아는 보스니아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세르비아와 함께 범슬라브제국을 구성하기를 원했다. 황태자부부를 암살한 프린치프는 슬라브 민족주의자로,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팽창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일명 사라예보 사건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사건 이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유럽은 제국주의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러시아는 영국 및 프랑스와 군사 협력관계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독일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복잡한 상황이 엮혀, 사실상 대단한 대의명분도 없이 세계 제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제국주의의 팽창이 가져온 이 전쟁에 대해 미국은 개전 초기 중립을 표방했다. 그러나 점차로 미국의 무게 중심은 영국-프랑스 연합군 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영국의 해상 봉쇄에 대항한 독일군의 잠수함 공격이 상선과 여객선, '중

립국 선박'을 포함하는 무제한적인 공격으로 확대되면서 미국 역시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1차 대전에 개입하게 된다.

제국주의적 탐욕에서 시작한 1차 대전은 여러 모로 끔찍한 전쟁이었다. 가령, 1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참호(구덩이)를 구축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했는데, 군인들은 비가 내리면 물과 진흙, 그리고 배설물 등으로 질척거리는 참호 속에서 고통스럽게 이동해야 했고, 그대로 익사해버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 수습되지 못한 동료의 시신이나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는 포탄 공습으로 인해 병사들은 극도의 심리적 공포까지 겪어야 했을 것이다.

1차 대전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로 만든 또 다른 요인은, 이 전쟁이 유럽 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진 전쟁이었던만큼 현대식 살상무기들이 대거 도입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독가스, 폭격기와 전투용 잠수함, 탱크와 같은 '신기술'이 도입된 덕에, 대량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사상자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최전선의 상황은 사기저하를 우려하여 항상 긍정적으로 부풀려지거나 날조된 상태로 보고가 되긴 했지만.

그런데 이렇듯 참혹한 전쟁 중에, 전투 중 희생자보다 더 많은 군인 그리고 민간인들이

'독감'으로 죽어갔다. (1차 대전에서 희생된 군인들 중 절반은 독감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도 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전세계 16만명의 인구 중 약 20~40%는 이 독감에 감염되었고, 그 중 대략 50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6만 5천명이 바로 1918년의 독감으로 사망했다. (http://www.flu.gov/pandemic/history/)

1918년의 독감은 일명 스페인 독감이라 불리곤 했는데, 스페인에서 먼저 발병한 전염병 이어서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 중이었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에서 먼저 보도가 되고, 또한 비교적 상세히 독감 소식을 전했던 탓이었다고 한다. 어쨌거나 1918년 여름, 독감이 전세계적 대유행이 되면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할것 없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다. 독감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폐수종으로 열굴이 시퍼렇게 변해버리거나 하면서 사망했다. (1918년의 살인적인 독감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05년으로, 스페인 독감의 원인균은 최근 10여년간 사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그리고 메르스 덕에 유명해진 H1N1 형 바이러스라고 한다.)

그런데 1918년의 살인적인 독감은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까? 중

요한 한가지 이유는 바로 '전쟁'이다. 1918년 초, 영국과 미국군의 캠프에서 상당수의 병사들이 가장 먼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만해도, 감염은 쉽게 되지만 사나흘의 열과 오한, 근육통 정도를 앓고 가볍게 지나갔기때문에, 독감의 과급력을 우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병력의 이동, 그리고 참호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전선의 상황 등은 빠르게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바이러스가 변종을 거치면서 점점 더 어느 순간 바이러스는 어떤 대량 살상무기보다도 치명적인 형태로 확산되고 있었다.

게다가 장기화된 전쟁동안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한 채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일반 병사들의 면역력도 매우 저하된 상태였기때문에, 일반 병사들이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병사들이 고국땅을 밟을 때, 강력해진 병원균도 함께 그들의 고향땅을 밟았을 것이고 삼시간에 치명적 바이러스의 전세계적 대유행이 벌어졌다. 도시 기능이 마비되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어지간한 국가 규모의 인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속출했다. 적어도 2년간, 바이러스의 위력이 약해질 때까지 그렇게 인류는 심한 몸살을 앓았다.

휴람 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휴람기본	62만원 → 47만원	78만원 → 59만원
휴람청일	120만원 → 91만원	138만원 → 103만원
휴람VVIP	304만원 → 228만원	320만원 → 240만원

[검진시간 안내]
평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 ~ 2시

휴람 제휴 이벤트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착률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0만원	8000모	990만원
		3000모	5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80만원~~ → **60만원**

*부가기치세별도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부가기치세별도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무병원 치과 과장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학 안전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디그 에스테틱 특별할인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에디그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스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다.
에디그만의 특별한 관리로
사년의 흐름을 잠시 멈추보세요

정명숙 독자

60에 시작한 등산

나는 평소에 짬짬이 동네 걷기는 자주 했으나 그러나 제대로 운동을 했다곤 볼 수 없었다. 걷다가 땀이 날라하면 끈적끈적한 느낌이 싫어서 얼른 중단하였었다. 내 작은 몸 아끼었던 잘못된 습관이었다.

결혼 후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가정주부로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의지만 하던 남편을 아프게 일찍 저 세상에 보내었다. 그 후 도 자기랑, 어린 한국 유학생들을 돌보아주며 별은 수입으로 십대의 두 딸 뒷바라지 한다고 10 여년 동안 꽤 바쁘게 살다가, 환갑 직전에 골밀도 검사결과를 해보니 골다공증까지 걸려버렸다. 내 작은 뼈대에 당연 하리라 예상은 했으나 섭섭하고 걱정이 되었다. 약도 먹긴 했었지만, 뼈에 좋은 음식과 운동도 필요한 거였다.

그때부터, 이제 좀 과격한 운동을 해야지 마음먹고 있던 2009년 가을이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잠시 집에 와있던 큰 딸이 무료했는지 어느날 갑자기 산을 가자고 했다.

등산이라...

미국에서 난 한번 Dicky and Welch 산을 산사랑 따라서 몇 년 전에 한 번 갔던 적이 있었다. 참 즐거웠었다. 그러나 또 갈 기회는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30 년 이상을 사는 동안 우리 식구는 야외 활동이라면 언제나 바다로 향했고, 그래서인지 큰 아이는 강, 바다를 15 마일 등 수영 경주는 했어도 어릴 때부터도 산에는 별레가 있다 해서 등산은 가본 적이 없었다.

영똥하게 딸아이가 그것도 제일 높은 뉴햄프셔 워싱턴 산을 가자고 무턱대고 말해서 내가 무리라 대답하니 그럼 내가 가지 않으면 자기 혼자라도 가야겠다 해서 애만 보낼 수 없어서 난 따라나서야 했었다. 난 Dicky and Welch 를 그래도 가보았으니, 그래 그럼 둘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기로 하자 결정했다. 나중에 딸은 내가 뻔히 따라 오리라 짐작을 하였었다.

아이는 등산다니는 자기 친구에게 묻고, 나는 이 지역 베테랑 산사랑 임원 김혜순 씨에게 물어본 후 라파엣 산이 가능할 거다 해서 Washington 보다 낮은 곳이니 거기 로 대신 시도키로 했다.

10월 21일, 수요일, 일기에보도 괜찮아

서 그날 당장 하기로 했다. 전날 밤 지도공부도 하고, 마음은 걱정 겸 설레어 잠을 설치었다. 새벽 6시에 집을 떠났다.

8시경에 Flum visiter Center parking 장에 도착했다. 파킹장에서 마침 낙옆을 치우는 레인저께 트레일 컨디션을 물어보았더니, 말씀이 Falling Waters 트레일로 올라가고 Old Bridle Path로 내려가라 권해서 그리하기로 했다.

장비는 없었고, 딸이 점심과 물병 등을 넣은 책배낭을 매고 운동화를 신고, 장갑, 자켓 등은 준비했다. 다행히 나는 마당일 할 때 신는 가죽 장화가 있어서 그걸 신었다.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올라가니 벌써 열음과 눈이 여기 저기 얼어 붙어있었다. 등산 경험이 없었던 딸은 미끄러운 상태를 접하고는 먼저 겁이 났는지 겸손해져 어제 완 달리 다정하게 내가 원하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도 된다고 제언했다. 그러자 대답하곤, 이전 내가 아쉬워 조금만 더 가보자하고 먼저 자꾸 올라갔다. 딸은 뒤에서 따라왔다. 우린 숨도 많이 차서 여러번 쉬었고, 중간 중간 찬밥과 핫도그를 먹으니 맛있었다.

미끄러웠다. 나무가지를 작대기로 쓰고, 기면서 뿌리를 이리저리 잡기도 하며 가다보니 결국 우리는 해이스택 첫봉을 올라가게 되었다.

활짝 열린 그곳엔 찬 공기가 우리를 휩싸고 돌았다. 예비로 가져온 어울리지않는 고운 스카프로 얼른 얼굴을 둘러싸며 한기를 막았다. 4,760' 산 바람이었다. 그날 산에서 처음으로 만난 한 등산객이 스파이크 창을 보여주며 이런거 쓰면 좋다고 권고하였다.

하여튼 우리의 첫 화이트 마운틴 봉우리였다!

모녀는 그때 거기서 완전히 New Hampshire 산에 매료되었다.

해이스택, 린컨 그리고 라파엣 세 봉우리를 모두 올라갔다. 그 봉우리들 사이 산등선이 3 마일을 걷는 동안엔 황홀한 경치를 보는 행운의 순간도 있었다. 하늘을 가로막았던 짙은 안개가 어느 순간에 무대의 커튼같이 활짝 걷히며 확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서 저기 멀리 아주 멀리까지 첩첩의

동산 산수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그건 거기에서 그때만 보는 거였다.

사진도 여러 장 찍었는데 지금도 보면 좋다.

하산 3 마일은 이미 지쳐서였는지 힘이 없는 돌산인 것 같았다.

10시간, 10마일의 White mountains 첫 등산, 트랙션을 착용했어야 되었던 미끄러운 산 상태 날에 모녀는 운 좋게 무사히 완주를 했다.

며칠 후까지 다리가 뻣뻣지근하였으나 기분은 좋았다.

난 그후에 딸과 둘이서, 또는 산사랑 팀하고 그리고 AMC (아팔래치안 등산 그룹)에도 조인하여 열심히 등산하였다.

만 이년 동안 뉴햄프셔 4,000' 이상 48봉을 끝내고, AMC 4000 Footer club 증서를 년 중 행사에서 흐뭇하게 받았다. 학교 우등상 또는 개근상 받는 기분 같았다.

그렇게 된 건 딸의 배려 덕분이었다.

뉴욕에서 살고 있는 딸이 열심히 틈을 내서 여러 금요일날에 직장 끝나고 곧장 버스 또는 기차를 타고 Boston에 도착했다. Andover 집으로 오면 밤 12시쯤이 된다. 잠시 눈을 붙이고 우린 토요일 새벽 산으로 향했다. 내가 48봉 할 수 있게 열렬히 나를 밀어주었다. 19.5 마일 Bond와 18.5 마일 Owls Head 횡단 등은 긴 등반이라 산에서 하루를 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거워질 배낭이 부담되어서 모두 당일치기로 하였다. 걷는 속도가 느린 나에겐 딸과 같이 아니하였으면 힘들었을 거였다. 우리 둘은 좋은 등산 짝이다.

산에 있을 때는 좋은 공기가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 행복했고, 착해지려 하고, 다한 욕심과 후회가 사라지기도 했다. 순간이지만, 심지어는 남에게 겸손하려고 노력까지 하게 한다.

그리고 난 내 생전에 없었던 새 근육이 생긴 것을 보고 하도 신기해서 자랑도 한다. 골밀도도 조금이나마 올라가서, 앞일은 하루 앞도 알 수 없지만 그냥 계속 산은 가야겠다.

지난 몇 해는 딸은 바쁘니, 마추피추 트랙외에 난 외국 사람들과 그룹산행을 중독 같이 다니고 있다.

2011, 12 월달에 딸 둘과 페루 잉카 트레

킹을 했는데, 밤마다 비가 쏟아지는 텐트 속에서 잤다. 낮에는 다행히 맑은 날씨였었다. Dead woman's Pass 4,200m (13,776') 거쳐, 히아누피추봉 2,720m (8,924') 에서 내려다본 마추피추 2,430m (7,972') 는 역사의 슬픔과 신비였다.

2013, 모로코의 초원과 양떼 무리들은 딱 성경책에 나오는 장면이었다. 또한 황무지, 그리고 High Atlas M'Goun mountain, 4,068m (13,346') 봉상에서 멀리 뻗어 있는 사하라를 바라보는 시간은 모든 생각을 중지시켰다.

2014, 안나푸르나 11일간의 트래킹 - Annapurna Base Camp, 4,130m (13,549') 에서본 새벽의 장경은 선글라스를 끼고도 눈이 부셨다. 네팔 사람들은 불교, 힌두교를 믿어서인지 선하게 보였다.

2015, 아르헨티나, 칠레의 파타고니아 글라시어 산들과, 인기도가 더 높아지는 유명한 파타고니아 "W"트랙을 방금 끝내고 와서 난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모두의 정상에서 한없이 있고 싶어 발걸음 돌리기가 정말 싫었다.

걸림돌들도 꽤 많다. 고소증, 내 150 cm 키엔 무거운 백팩은 힘이 든다. 타지의 음식이 종종 속을 불편하게 해서 허허 벌판에서 짹짹 때도 많았고, 잘 타는 피부에 건조와 열로 인해 입이 부르터서 추하게 보이기도 하긴 하다. 좁은 헛에서 여러 명이 며칠을 지내면서 다른 사람의 기침이 나에게도 번져 기침도 한참 했었다. 집이 제일 편한 건 사실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걱정이 있다. 노후자금이 살살 줄어든다.

요즈음 생명줄이 자꾸 길어진다고 하지만 왼쪽 무릎도 가끔 아프고 하니 갈 길이 더 가까운 건 확실하다. 난 좋아하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뭘 끈질기게 장시간 동안 꾸준히 견뎌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등산이 나에게 적당한 걸 뒤늦게 알게 된 아쉬움도 많지만 몸이 따라주면 열심히 하려 한다. 내 주위 친구들에게 경우 따라 여행 경험을 신나서 이야기도 해준다. 부러워 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거 같다. 누구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살고 있으니 돈 생각 덜하고 산에 가려한다. 길어야 몇 년 더 가겠는가.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45,000 매매가격 \$40,000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용자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70,000 매매가격 \$19,000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매매가격 \$99,000 32년만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3주단위,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3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5년 이상의 강의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7.13~8.21
(3주단위,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